

하나님을 찾아 온갖 시련을 극복하며 세워진 미국이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업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호세아서 14장 1-2a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7월 2일 (토) 제 159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건국이념 지속위해 기도해야

역사학자들, 1차 대각성운동을 미 독립전쟁 전조로 해석

제 240주년을 맞는 미국 독립기념일 주일이 다가온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동부 13개 주가 연합해 영국으로부터 해방돼 독립을 이뤘다. 해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미국사람들 3,800만 명이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를 이용해서 주말 대이동을 한다. 불꽃놀이와 축죽과 바베크용 핫도그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다. 특히 어두운 하늘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해마다 불꽃놀이 이틀 보면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게 된다.

그러나 찬란한 불꽃놀이 이면에는 미국을 어렵게 하는 즉 하나

님의 법을 떠나가는 현상들이 즐비하다. 즉 동성연애, 낙태, 안락사, 사형제 폐지 등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이건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 아메리카 독립 전쟁의 불씨는 제1차 대 각성운동이었다. 240년이 흐른 지금 미국이 살 길은 다시 제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길 뿐이다. 지금처럼 신앙이 해이해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 지금 미국은 점점 위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620년 청교도들이 이주해오고, 1775년 독립전쟁이 시작돼 1776년 7월 4일, 식민지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제3회 대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독립을 선언한 후, 1788년 파리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돼 미국 13개 식민지 독립이 승인됐다. 다음해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필라델피아 교외 밸리 포지(Valley Forge)에 있는 기념교회당에 새겨진 그의 기도문은 이렇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미국은 개척 초기부터 건국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돼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세상일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일은 더 이상 상관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와 통치 배후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 세속화되면서 교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중심가에는 독립

거짓 없는 믿음과 애국심으로 이룬 미 독립!



기념관(Independence Hall)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자유의 종(Liberty Bell)'이 금이 간 채로 매달려 있다. '자유의 종' 첫부분에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자유의 종' 바로 옆에 있는 독립기념관 안에는 제 3대 대통령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문'이 전시돼 있다.

독립선언서 둘째 줄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독립기념일에 대한 전통은 드디어 제 32대 루즈벨트(Frankline Roosevelt) 대통령으로 하여금, 4가지 인권의 자유를 선포하게 만든다. 1)Freedom from Want(공포로부터의 자유) 2)Freedom of Speech(언론의 자유) 3)Freedom of Religion(신앙의 자유)를 선언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자유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나라였다.

(3면으로계속)

선교적 역동성 구비하게 만든다!

리더십저널, 페리미터교회 랜디 포프 목사의 TEAMS 소그룹 양육원리 소개

제자훈련은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며, 작고 느리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이 같은 영향력은 자신의 삶을 다른 이에게 투자할 때 발생하는데, 리더와 제자가 만나는 소그룹은 성공적인 제자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씨앗이 된다.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부르심의 일부로서 선교가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선교란 그 개념을 폭넓게 이해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린 세상에 전하고, 그 자비의 열매를 치유와 소망이 필요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하고 자발적인 자세와 신

실함을 갖춘 리더가 이끄는 제자훈련을 통해 확장된다.

제자 된 삶을 통해 영향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 만든 랜디 포프(Randy Pope)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선교로 유명하다.

그는 조지아 주 둘루스(Duluth) 시에 있는 페리미터교회의 담임목사로,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혁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애틀랜타 지역에 23개 교회를 개척했고, 페리미터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들과도 연합해 매년 애틀랜타의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사역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시키는 훈련 5가지 원리

Truth ● Equipping ●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 Mission Supplication

성숙하고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설명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Truth - 진리를 강조한다

진리를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소그룹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서로 배우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소그룹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므로 소그룹 시간에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한된 소그룹 시간에만 진리를 배우는 수동적인 방향이 돼서는 안된다.

소그룹은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있는 더 많은 삶에 성경적 진리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

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혹은 소그룹 시간의 은혜와 진리의 나눔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

Equipping - 무장을 강조한다

무장은 진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진리를 삶에서 빛의 과정이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뿐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반복되어야 한다. 무장에는 본보기, 설명, 질문 던지기가 더해진다. 진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시도해본 사람의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나누어 진리의 적용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3면으로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ission@wmu.edu, 213) 368-1005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말씀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책임자: 최사 ryong@joenpress.com

영국 브렉시트 찬성, 반(反)글로벌리즘 상징!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제1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니성순복음 국제음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니성순복음 국제음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 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관습합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침낭, 갈이 입을 옷, 수영복, 선블락, 개인물품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myouth@gmail.com

강사



김춘근 장로
LAMA 설립자, OLDI 대표

|새라 김 사모
(TVN/CXT 대표)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몸기장이 선교단



영국 브렉시트 찬성, 반(反)글로벌리즘 상징!

세계 언론, 이민 배척과 국수주의 성향으로 돌아선 영, 미 정세에 따른 국제사회 반응보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영국이 탈퇴를 선택한 이상, 신속히 탈퇴 협상에 돌입해야하며, 협상이 지체되면 불확실성만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EU Brexit referendum: UK 'must not delay leaving'). 장 클로드 융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연합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탈퇴(52%)'가 '잔류(48%)'를 앞지르며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실시 됐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캐머런 총리는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총리가 탈퇴 절차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글로벌 주식 시장이 요동쳤으며, 파운드화 가치 또한 급락했다.

EU 지도자들은 유럽 통합에 대한 발상이 차질을 맞게 될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영국이 없는 EU는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또한 EU 지도자들이 상황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영국과 정치적·경제적 결별을 위한 협상을 원한다는 점도 명백해 보인다.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10월까지 기다리는 대신, 영국이 당장 다음



한 메르켈 총리는 조만간에 도날드 터스크 상임의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나젤 파라지 영국 독립당 당

△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우리를 중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을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 우리는 이 결정이 세상의 끝이 아니며 당연히 유럽연합의 끝도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소보트카 총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들을 대변하며, "유럽은 보다 더욱 유연하게 실행 태세를 갖춰야 하고, 더 관료주의적이거나 할 뿐 아니라 회원국들이 나타내는 다양성을 보다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 영국의 국민투표가 "모닝콜이거나, 혹은

국민투표 '탈퇴-52%' '잔류-48%' ...탈퇴협상 2년여 예상 다문화적 글로벌한 인류 역사 흐름 역행...트럼프에 유리

주부터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신속히 탈퇴 절차를 밟을 것을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는 현재 긴장 상태가 이미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측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몇몇 국가들로서는 영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어떠한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의 정치 판도는 뒤집어졌다.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결과지만,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EU 지도자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을 때 "유럽연합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이 탈퇴할 시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2년여 간에 걸친 탈퇴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에 당면한 유럽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의 결정에 "대단한 유감"을 표했으며 이는 "유럽과 유럽 통합 과정에 타격을 입힌 셈"이라고 밝혔다. 또

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의 결정이 "유럽을 심각하게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평했으며,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럽의회는 이번 '브렉시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28일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야말로 영국이 이민 및 안보 이슈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부 EU 정치인들은 영국의 탈퇴로 인해 유럽연합 전체가 위협받게 되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 탈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의 유럽회의주의 정당 대표들은 재빨리 자국에서도 국민투표

수는 "유럽연합이 죽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터스크 상임의장은 "지금은 발작적인 반응을 할 순간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많은 EU 지도자들이 영국의 선택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연대를 촉구했으며 몇몇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타비 로이바스 에스토니아 총리: "우리는 유럽연합의 통일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마르셀루 헤벨루 포르투갈 대통령: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공동의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위험한 여정의 시작 중 하나"이며, "우리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통일된 유럽, 보다 더 나은 유럽, 더욱 사회민주적인 유럽의 시작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 하워드 파인먼(Howard Fineman) 지구촌뉴스 편집인은 영국의 브렉시트 찬성은 바로 반 이민주의 그리고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영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대변한다고 해석한다. 거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예비 경선에서의 '트럼프 돌풍' 역시 '백인 앵글로색슨 층'의 저항에 반사 이익을 본 것이라고 풀이해준다.

(12면으로 계속)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1): 변질되어가는 보수주의



박동서 목사 (엘크로브 가스펠교회)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것인지 아니면 잔류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한 결과, 근소한 차로 과반수가 넘어서 탈퇴(브렉시트, Brexit)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속보는 영국과 온 유럽, 나아가서 전 세계를 우려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EU의 친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영국 내 전통적 백인 보수 성향층의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인도와 아프리카의 구 대영제국 식민지 국가들의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영국에 잘 동화되어왔고, 별 사회적인 문제없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 십년간 급증한 중동의 이슬람 신자 이민들과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대영제국 시절의 영광과 전통에 대한 향수와 보존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면서 결국 탈퇴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국 한 나라의 EU 탈퇴로 마무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브렉시트가 기폭제가 되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 예상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국 내에서는 베이비부머 이상 노년세대가 영국의 미래와 자신들의 삶을 망쳤다며, 밀레니엄 청장년세대가 재투표를 요구하며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색채가 다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민자 집단들을 향한 원색적인 차별 및 인종 혐오적인 낙서와 공격들이 시작되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도 직격탄을 날려서 유럽 연합에 반대했던 보수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고 보수 집단 지역 도시와 지방들이 분리 독립과 EU 탈퇴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고, 도미노 현상 속에서 민족주의와 소위 신고립주의를 부상시켜 세계는 연합의 시대를 벗어나 분열과 대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최악의 내분을 경험하면서 비호감의 상징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층은 극보수 그룹인 티파티와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 반 이민군호를 외치는 극단적 백인층들,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과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직장을 잃은 젊은 실업자들, 양방 모두에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고 싶은 무정당파 층, 그의 반 이슬람 주장에 동조하는 유대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지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마저도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행정명령으로 구제받은 400여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대해 다시 합법적 신분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 다. 미국은 개별적이고 어느 정도 자치적인 주들이 모여 연방정부를 이룬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모습을 독립 이래 계속 유지해 왔는데, 독립 이후 처음으로 텍사스나 버지니아와 같은 주들이 미합중국에서 탈퇴하여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겠다고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소수이긴하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힘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렉시트는 미국의 해외 정책에서도 미군 철수와 해외 기지 축소, 분쟁 개입 회피,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드러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나라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보수(Conservative)란 전통적 가치관, 특히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성향의 집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래의 순수한 개념은 이름만 남고, 지극히 개인이나 집단만을 위한 이기적, 배타적, 지역적, 인종차별적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개혁적 보수, 열린 보수, 따뜻한 보수, 중도적 보수, 등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의 보수는 동일시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종교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사회의 모든 영역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후기 산업사회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그 경계도 허물어져 버린지 오래입니다. 종교가 다른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가치관을 공급하던 체계가 붕괴되어 이제는 거꾸로 종교가 다른 영역에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류현상은 종교적 보수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수용, 여성 목회자, 직분자 안수 등과 같은 요구는 일부 진보적인 교단을 넘어 범 보수적인 교단의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보수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극보수와 수용하고 타협하는 중도적 보수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과 그 해석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전통과 기존의 제도를 보존 유지 혹은 더 강력한 회귀를 원하는 기성세대의 감정적인 보수와 조금 더 다양함과 폭넓은 수용을 요구하는 신세대의 진보로 양극화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실종되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력을 상실해가면서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의 역류현상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나 전통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tdspark@gmail.com, comtdspark@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718)886-4424(광고국) Fax:(718)886-0074(대)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Midwest University

건국이념 지속위해 기도해야

(1면에서계속)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지고 "WASP"(White Anglo-Saxon Presbyterian)의 나라로 오늘까지 자유를 만끽하며 살던 미국에서 이제 언론의 자유는 서서히 사라져 간다. 신앙의 자유도 사라져간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서서히 조여 온다. 이제는 종교 집회의 자유도 점차 침식돼 간다.

미국의 최초 13개의 식민지가 강대국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흔하지 않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무서운 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직접적인 동기는 영국이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백성의 대표자들을 정치의 대의원으로 인정치 않고, 과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식민지 백성들이 영국에 대한 항거였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당시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은 기도했고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가면서도 애국심으로 열심히 싸웠다. 결국 하나님은 미국편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여

되는가? 그때와 꼭 같은 상황이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은 1730년대부터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으로 확대돼 갔는데, 처음 부흥의 불길을 붙인 사람은 뉴저지 주에서 목회하던 화란 개혁신교단 소속 프렐링 하이젠 목사였다. 그는 거리에



나에게 돌아오도록 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무터에서 사람들은 회개의 바람이 불었고,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컷주 인필드라는 마을에 있는 회

말씀으로 권면하며 회개를 촉구했다.

프렐링하이젠 목사의 설교는 제1차 각성운동의 태입을 끌어놓은 결과가 되었다. 후에 나타난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화이트 힐드 목사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하

다. 처음서부터 "지옥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려 하는데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릴 것입니까?"라고 시작해 "롯의 처를 생각하라"로 끝났다. 이런 설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목사이자 역사가인 조셉 트레이시가 1842년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써,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미국 독립전쟁의 전조로 해석한 것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은 제1차 대각성에서 힘입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개했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다. 그 감사는 암제하는 영국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며 나라를 독립하고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시 말하면 굳건한 신앙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승화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두 한 목소리로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과연 독립을 쟁취한 미합중국은 신앙위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하여 여러 종파의 이념을 수용했으며, 나라의 독립선언서나 나라의 헌법이나 모두 성경의 원리를 적용했다. 교회의 민주주의적 정치가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의 표본이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은 이와 같이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에서 얻은 거짓 없는 믿음과 이 믿음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진 열매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던 백성은 오늘까지 240여년 간 번성했다. 초기의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철철 넘쳐흘렀다. 미국독립 24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의 건국이념이 길이길이 지속되도록...

미 독립 240주년... 건국초기 신앙자유보존

나가 골목 어귀에서 행인들이 향해 "회개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노방전도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이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성하고 각성하게 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회개의 역사를 이룩했다. 일반 성도들도 나무터에서, 학교에서, 들판에서, 직장에서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

문자 그대로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었다. 사랑마다 성경을 읽고 서로 서로 중교회에서는 회개하며 우는 회중 때문에 설교를 맡은 에드워드 목사는 40분이면 끝낼 설교를 청중들이 우는 바람에 멈추고, 진정이 되어 잠잠하면 다시 설교를 계속하다보니 한 시간 반이 걸렸다.

이 설교는 무슨 내용이기에 그렇게 청중을 울렸을까? 신명기 32:35 한 절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죄인(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이라는 설교였던

은 모두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먼저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 안에서의 영성은 이 기반 위에 서있어야 바른 과녁을 향해 움직인다. 교회가 세워지고, 소그룹이 은혜로 위아 선교가 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소그룹을 운영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소그룹을 올바르게 세워간다.

Supplication - 간구를 강조한다.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어 한다.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효력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이자 소그룹 멤버

간에 가까워지는 도구이기도 하다.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경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한다.

이 다섯 강조점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면 TEAMS가 된다. 이를 따르다보면 소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선교적 역동성을 가진 한 '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나의 가족, 소그룹, 교회가 이 다섯 강조점을 잘 강조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설교준비(하)

목사는 목회가 우선이다

필자가 통합교단 부총회장으로 피선된 것은 55세 되던 해였다. 서울, 호남, 영남, 중부 4개 권역으로 나눠 부총회장을 뽑는 관행을 따라 서울지역에서 피선되었고, 당시로는 가장 연소한 나이에 총회장을 섬길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대다수 일흔을 바라보는 대선배들이 열전을 거쳐 당선된 데 비하면 영광이었고 기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단이 규모가 커지고 세계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부총회장 1년, 총회장 1년 그리고 직전총회장 1년 해서 3년간은 총회를 밀착으로 섬겨야 한다. 대내외 활동에 해외교회 방문, 각종 회의 주재, 각종 행사, 연합사업 등 눈코 뜰 사이 없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거기다 총회장이 되던 해 KNCC회장의 중임까지 맡게 된 탓으로 하루하루가 격무였고 무겁게 그지없었다. 그래서 총회장의 직무를 맡게 되면 안식년을 활용하여 목회를 쉬고 세계교회를 순방하거나 총회만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필자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평생 목회 중 어느 곳에서도 안식년을 갖지 않았다. 이유는 총회장 보다는 목회가 우선이라는 소신 때문이었고, 교회 밖의 일 때문에 목회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안식년 제도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였고 선물이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실행되기 시작했고 목회자에게만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철저히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다.

안식년 소감

필자의 경우 단 한번도 안식년을 갖지 않았다. 휴식과 재충전, 연구와 자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목회자가 1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안식년을 모두 반납해 버렸다. 그리고 안식년이 끝난 뒤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주변 목회자들의 사례들이 더욱더 안식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고착시켰다. 안식년이 화관이 되어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요즘을 추세는 안식년을 갖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 교회 상황을 살펴야 하고 원만한 협의와 양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합의점도 찾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언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목회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목회에 부정적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준다.

목회자의 경우 총회나 노회, 대외활동이나 연합사업보다 목회가 우선이라야 한다. 목회는 제쳐 둔 채 총회를 기웃거리고 할 일도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정치꾼이라고 부른다.

목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보살펴야 할 일이 많은가? 그런데 목회는 뒷전이고 정치판에 전력투구하는 정치꾼들은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총회나 노회도 집단 공동체인 탓으로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위 '꾼'들이 활개 치고 요란 떠는 정치는 심중팔구 파행을 초래하고 한국교회를 피명 듣게 하는 흉기가 된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는 목회현장이다.

이러한 필자의 소신 때문에 밖에 일을 한다는 구실로 목회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해외순방이나 회의의 경우도 주일은 돌아와 강단을 지켰다. 그리고 돌아온 그 다음날엔 새벽기도를 인도했다. 총회장 직임 때문에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성장이 정체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떤 때는 하루 동안의 미국회의를 마치고 다음날 돌아오기도 했다.

목회란 한눈팔면 금방 파장이 드러난다.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 자신의 행동이나 행보를 정하지 못한다. 목자는 위험과 위기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필자의 경우 작은 목회였지만 총회장 재임 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활성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 이유는 총회나 노회, 연합사업과 대외활동보다 목회를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정치적 정도를 갈 때 존재가치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소위 정치꾼들은 정도를 외면하고 파행을 일삼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추대를 부린다. 목사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 일도 없이 쉬는 것은 태만이다. 휴식, 안식년, 휴가, 심지어 연구 자체도 목회보다 소중하지 않다. 목사에게 목회는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

iamcspark@hanmail.net

선교적 역동성 구비하게 만든다!

(1면에서계속)

이는 "삶 대 삶"의 나눔이다. 진리를 설명할 뿐 아니라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적용하고 그 경험과 배운 점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즉 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Accountability - 상호책임 강조한다. 상호책임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그룹에서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교조주의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는 소그룹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폭발적인 역량을 불러 일으킨다. 서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더러, 소그룹의 멤버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삶을 점검하며, 표면적인 잘못 아래 내밀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한다.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가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사람이 건강하고 포용하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Mission - 선교를 강조한다. 우리의 소그룹, 교회, 제자훈련

은 모두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먼저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 안에서의 영성은 이 기반 위에 서있어야 바른 과녁을 향해 움직인다. 교회가 세워지고, 소그룹이 은혜로 위아 선교가 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소그룹을 운영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소그룹을 올바르게 세워간다.

Supplication - 간구를 강조한다.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어 한다.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효력을 경험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이자 소그룹 멤버

간에 가까워지는 도구이기도 하다.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경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 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한다.

이 다섯 강조점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면 TEAMS가 된다. 이를 따르다보면 소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선교적 역동성을 가진 한 '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나의 가족, 소그룹, 교회가 이 다섯 강조점을 잘 강조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Shepherd University

WASC, ACICS, ATS

쉐퍼드대학교는 ATS 뿐만 아니라 WASC 및 ACICS 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군정학금 무상지원 프로그램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TITLE 4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동시 통역 강의

※ 유학생의 R1, H1B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은 연방정부교육국(CHEA)에서정회원으로 인증된 학교의 학위뿐입니다.

과정	학점	전공
신학학사 (BABS)	12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신학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스포츠 미니스트리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경영학
목회학석사 (M.Div)	9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목회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교육학 <li style="width: 33%;">선교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상담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경영학
목회학박사 (D.Min)	36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33%;">목회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사회복지학 <li style="width: 33%;">선교학 <li style="width: 33%;">목회 상담학 <li style="width: 33%;">기독교 교육학

주안 캐롤로스 오르티즈 박사호로 학장

저서 ● 저자 입회 ● 주님과 동행하는 삶 ●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할스 크래프트 박사

저서 ● 김동진 목사님을 만난 날 ● 신학의 아름다움 ● 그리스도의 내적치유 / 조

입학문의 | 323.550.8888 Ext.8231 | SEVIS I-20발행

WEBSITE | www.shepherduniversity.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죽어서도 고통당한 천재 파가니니

우리는 이 시대 잘못된 루머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한 속성의 씨앗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들은 소문에 나름대로 각색하고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유혹의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큰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황당한 소문 때문에 죽어서까지 고통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Niccolo Paganini, 1782-1840)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

다. 그가 네 살 되던 해에 홍역이 창궐하여 동생은 죽었고, 그도 합병증으로 살 소망을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항상 굶주리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지내야 했고 그의 어린 시절 유일한 장난감은 아버지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어린나이에 연주자로 나서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주는 표가 항상 매진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뛰어난 연주실력 때문에 항상 고약한 소문이 따라

다녔습니다. 청년 파가니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을 치열하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안 파가니니는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여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 일로 여인은 죽었고, 그는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소지하도록 허락 받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탁월한 연주법을 독학으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대단하여 바이올린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G선 하나만 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를 흥내냈고 상상할 수 없는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을 흔들여 놓는 연주였기에 연주회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은 미친 듯 무대로 뛰어올라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바이올린을 살살이 훑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재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연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옴비노와 룩가의 여 군주, 엘리자(Maria Anna Elisa Buonaparte, 1805-)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으로,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혼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행히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었던 악귀가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에 비금가는 연주를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던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는 1840년 파가니니의 추도사에 언급하기를, "소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겼으며 그가 그토록 매혹적으로 커터던 네 번째 현은 바로 그가 제 손으로 교살한 애인의 창자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리스트조차도 파가니니의 신기에 가까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악마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악가 슈베트는 그의 연주를 본 후, 저런 인물은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탄복했습니다. 당시 비엔나나 베를린 사람들은 파가니니의 연주를 본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의 연주회를 관람한 장면을 묘사한 화가에 의하면 남자들은 정신을 잃

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는 여자들을 가깝스로 막아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의 연주는 도도하기만한 영국인들을 또 미치게 했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회는 표 값이 보통 연주자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주회는 항상 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얼마 전 정명훈 선생의 스칼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스칼라에서 심포니 연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매진되어 극장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 다.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정명훈 선생님에 대한 인기가 높음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가니니는 결국 니스에서 후두 결핵으로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라다니는 소문 때문에 그 천재성에 대해 사체는 그가 사탄과 결탁하였기에 그런 기막힌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장례를 거절했습니다. 주교는 제의하기를 사탄의 도움으로 벌어들인 재산 일체를 교회

에 헌납한다면 이를 참회의 표시로 인정하고, 장례를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모든 재산을 기부했고, 1년 뒤 1876년 파가니니가 죽은 지 36년 만에 결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청원이 받아들여져 드디어 가톨릭의 전례에 따라 파가니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구라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바이올린은 현재 제노아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악기는 악마가 붙어 있다는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악기가 박물관의 유리상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길을 견디어내기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 또 다른 파가니니 같은 천재가 나타나 2백 년 동안이나 켜켜이 쌓인 먼지를 훑을 털어내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해 봅니다.

chiesadiroma@daum.net



푸 / 른 / 초 / 장

김은천 목사
(퀸즈중앙감리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하신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 번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를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열납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열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릴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길이 아닌 삼 일 길을 가야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에 가면 흔한 것이 나무인

데도 불구하고 본문 3절(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도 가독한 정성이 깃들여져야만 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5절(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에 보면 3일 길을 같이 온 두 사람과 나귀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

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릴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길이 아닌 삼 일 길을 가야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에 가면 흔한 것이 나무인

데도 불구하고 본문 3절(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도 가독한 정성이 깃들여져야만 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5절(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에 보면 3일 길을 같이 온 두 사람과 나귀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

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 사정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5절(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에 보면 3일 길을 같이 온 두 사람과 나귀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

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릴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길이 아닌 삼 일 길을 가야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에 가면 흔한 것이 나무인

데도 불구하고 본문 3절(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도 가독한 정성이 깃들여져야만 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까? 짐승을 데리고 가면 언제 울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5절(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에 보면 3일 길을 같이 온 두 사람과 나귀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

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릴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길이 아닌 삼 일 길을 가야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에 가면 흔한 것이 나무인

데도 불구하고 본문 3절(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도 가독한 정성이 깃들여져야만 하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는 참석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 되지 못하므로 아무리 예배를 백번 천번 드려도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부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요. 살아 있으면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단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나의 신앙, 생각, 방식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무대위를 무뎠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tkim25@yahoo.com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창세기 22:1-14

고 자기는 이삭만 데리고 더 들어가서 경배 드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만 깊이 생각하며 그에게만 집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내 나는 제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

Southern California Seminary(SCS)는 미국 학교로는 처음으로 심리상담학 석사(MACP)와 결혼 가족 치료사(MA in MFT) 그리고 심리상담학 박사(Doctor of Psychology)를 한국어 과정(한/영 이중언어)으로 개설하였습니다.

SCS 는 미 연방정부 TRACS 인가 학교로서 The California Board of Behavioral Science와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에서 인증 받은 학위과정 입니다.
* I-20 발행-유학생 환영

SCS의 Behavior Sciences 대학원은

- 석사 및 박사 과정 후 CA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 면허를 취득하시면 직접 클리닉 개업 가능합니다.
- 졸업생들은 전문상담사, 임상 심리 치료사, 가정사역자 등 비영리 기관, 병원, 교회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동급의 다른 학교 학비와 비교해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하실 수 있으며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보조신청 (Federal Student Financial Aid)이 가능하며 기부 장학금, 교회 및 기관 사역 장학금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상담, 약물중독 상담, 전문코칭 등 여러 상담 관련 교육 과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NEW

- MA in Christian Ministry (신학부 석사과정: 평신도, 직분자, 교회 리더를 위한 1년 석사과정 개발) 한국어 신학부 : 안국환 교수님 kukwhan.ahn@socalsem.edu, 619.201.8982

심리학교수님 초빙
박사학위 및 라이선스 소지하신분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samuel.lee@socalsem.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40대 중반에 직인 6천명의 작지 않은 기업을 이끄는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야기가 생각한다. 그분은 미국에서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 하나로 오랫동안 한국의 기업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한 분이였다. 나와 비슷한 연배에도 늦은 결혼으로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그분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은 교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했다.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는 얼핏 보면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단 순교훈에 이르게 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토끼라는 존재는, 비교경쟁 가운데 나름의 기쁨

고 해서 거북이가 낙심했을까? 그럴 거면 경주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였다.

비교경쟁과 목적지향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과 공교육의 특징은 비교경쟁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 아이 자체보다는 상대방 엄마보다, 이웃집 아이보다, 좀 더 좋은 학교와 공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이웃집 애보다 못하면, 그 엄마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 아이가 세칭 일류대로 꼽는 연고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도, 앞집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비교경쟁에 시달려 결코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거센 치맛바람을 만들어 낸 이유가 된

다름인 것이다. 또 상황과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너무나 불행한 목사가 되고 마는 비참한 경험의 숙지 탓이기도 하다.

비교경쟁에 사로잡혀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 때로는 요셉의 자랑스런 채색 옷이 찢겨나가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죽음의 구렁이에 던져짐과 같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인도를 볼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북이처럼 영영영영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복되게 걸어가는 걸음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온전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과거 어떤 장로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귀가 자주 이런 상처를 통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세리토스의 김 집사

A: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 어두움의 세력과 영적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두움의 영의 세력이라고 깨달아지면 즉시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뱀전5:8-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영어로는 "Resist the Devil"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약4:7절을 보면 "그러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영과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상처받은 감정 쏘뿌리 안되게 예수이름으로 물리쳐야

중요한 영적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상당히 파괴력과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가르는 것보다 이 감정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영향력이 큼니다.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기분 나쁜 감정, 기분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우울한 감정, 복수심의 감정 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감정이 말씀으로 컨트롤 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생겨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 늑대 같이 포악하고 비판적인 사람, 뱀같이 차가운 냉혈인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속에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들을 잘 순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감정들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입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입은 감정이 떠오르며 미움과 복수심의 감정이 생기면 내속에서 먼저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다칩니다. 그것이 내게 쏘뿌리가 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다치고 망가집니다. 지난날의 쓰디쓴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쏘뿌리와 같은 이 모든 상처의 감정은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나는 이런 감정에 매이지 않겠다. 내가 도로 가지고 가리" 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상처는 오래되면 더 깊은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쏘뿌리가 됩니다. 상처 준 장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친 곳에 빨간 머큐를 발랐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자주 지난날의 상처를 통해 마귀가 공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비교경쟁과 목적지향의 세상

-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지 않는 복된 삶 -

을 누린 존재였다. 거북이에 비해서 자신이 빠르니까, 경주를 시작하지 한참이 지나도 상대방 거북이는 머리털도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거북이에 비해서 자신은 꽤 모든 면에 우월하고 꽤 짧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쟁에 따른 승부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당연히 되지 않을 게임에 나섰다는 것부터가 거북이 안에 토끼가 모를 아주 속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분의 설명으로는 거북이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토끼와의 이기고 지는 승부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북이는 토끼처럼 비교경쟁에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이길 절대승자로서의 여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존재로서 토끼와의 경쟁자체를 처음부터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분이 천연한 다. 토끼가 이기고 거북이가 졌다

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분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목적지향적이고, 자녀의 독특성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정한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비교우위의 대학을 찾기 보다는 공부자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각자의 삶의 가치관을 정비하면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도 미국에서 크고 있는데,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한국의 애들에 비하면 지극히 바보(?)같아 보여도, 나중에 대학이후에는 차이가 벌어져서 후에는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미국의 차세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적지향적인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교우위 목회와 목적지향 목회 열변을 토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싶었다.

우리 교회는 비교우위 속에서 이 지역의 교회들보다 조금 사

성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곧 교회는 설립 13주년을 맞이하고, 나의 이민 목회 연한도 돌아간다. 이민 교회 10년 이상 되는 것이 특별하다 하지만, 교만할 이유도 포기할 근거도 없음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주고 가리워 주심의 결과이었음을 고백한다. 목회의 일이 세상일보다 쉽지 않음은, 목회의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사람의 일이기 10년 20년 30년을 했기에 기술을 잘 배우고 익혀서 나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가 잘되던지 안되던지, 반대로 안되던지 잘되던지 아무 차이 없더라는 것이다. 잘되는가 싶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생각만큼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만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굳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아 행복하듯이, 좋은 신 주님 안에서 그저 행복을 누릴

에 있더라는 것이다. 목회에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을까? 종로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영원한 승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까지/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을 때, 목회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영원한 승리와/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것이다. 목회뿐일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마음 속 깊이 소망한다. 비교경쟁에 사로 잡혀 잠시 승리를 맛보고 그것이 모든 것이 양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실한 불행한 토끼 같은 목자가 아니라,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허락하신 목회의 환경에 감사하며, 참 좋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목자로 주를 기쁘게 하는 승리를 맛보는 참 좋은 거북이 같은 종이 되기를 소망할 따름이다. 거북이가 좋다. 거북이 만세! davidnjon@yahoo.com

한인가정상담소, 긍정적 자녀양육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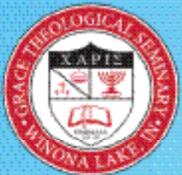
한인가정상담소(KFAM,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소장 카니정조)가 지난 16일 '긍정적 자녀양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인 부모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한 부모교실'의 하나다. 이날 모임에서는 로렌권 자녀교육상담사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 16일 '긍정적 자녀양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8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s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람퐁(LAMPUNGSE)



람퐁족은 인도네시아 주요 섬들 중의 하나인 수마트라(Sumatra) 남쪽 끝에 살고 있다. 한 때 그들은 그 섬에서 가장 큰 민족 그룹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20년에 걸쳐 수마트라 섬으로 이주해온 3백만의 자바족이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람퐁족은 큰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람퐁족은 아붕(Abung), 파밍기르(Paminggir), 푸비안(Pubian),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뉜다. 아붕은 사람을 해치고 침략의 역사를 가진 산악지방 사람들이고, 푸비안과 파밍기르는 어업과 농산물 무역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리는 저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람퐁족은 수마트라에 사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부족인 코메링(Komerling)족과 같은 언어 그룹에 속하지만 같은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지내지는 않는다.

삶의 모습
전혀적인 람퐁 마을에는 막대기와 죽마 위에 지어진 고상식 가옥들이 있다. 이러한 가옥들은 "세사트(Sesat)"라고 불리는 마을 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주위에 세워진다. 세사트는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인 집인데, 다양한 집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큰 방 하나를 작은 방으로 나누어 놓았다. 마을 위원회는 이 세사트에서 모임을 갖는다. 람퐁족의 영토는 다섯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 지역은 더 작은 구역으로 나뉘며 각 구역들은 남성 대표에 의해 다스려진다. 각 구역의 이름은 그곳에 사는 가족의 이름에 따라 붙여진다. 람퐁족 문화는 여성에게도 지위가 있다. 귀족계급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춤추는 동안 그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기 때문이다. 많은 람퐁족 사람들이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생산된 농산물을 큰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하며,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최근 자바족의 이주로 인해 많은 농사꾼들이 멀리 북쪽으로 밀려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심지로 옮기기도 하였다. 매력적인 람퐁족 문화 중 하나는 가족과 가문을 나타내는 표시로 천으로 된 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기발에는 배나 사당의 모양, 사람과 동물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훌륭한 예술 작품들은 결혼이나 제사 의식, 위기 때 걸려 있게 된다. 람퐁족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어가 공식어로 채택돼 수마트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무슬림과 수마트라섬 사람들의 교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13세기 말 수마트라로 유입됐다. 이슬람의 영향은 서서히 람퐁족의 문화를 약화시켰고, 지역 대표는 마침내 그들의 지위와 힘을 잃게 됐다. 19세기까지 람퐁족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현재 람퐁족은 헌신적인 정통 무슬림들이다. 이것은 이슬람 신앙이 정령숭배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남부 수마트라 부족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주정책을 강제적으로 실행해 많은 람퐁족 사람들이 학대 받는다고 느끼게 됐고 이에 분개하게 됐다. 이러한 고통으로 새로 이주해온 자바인들과 갈등과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됐고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슬프게도 람퐁족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주된 사람들은 자바인 기독교인들이다. 인도네시아어가 매우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람퐁어로 출판되는 일반 및 기독교 자료는 거의 없다. 람퐁족은 새로운 사상에 관대하게 열려있는 종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러 외부의 시도들이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이러한 저항을 일으키는 요소 중의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애착이다. 현재 람퐁족 사이에서 사는 크리스천은 타 지역 사람들(주로 자바인)이 상당수 있다. 불행하게도 람퐁족 사람들은 자바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알려진 람퐁족 크리스천은 단지 50명쯤이다. 비록 람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보급될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1년 만에 동성부부 33% 급증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결혼한 동성 부부가 1년 사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이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발표를 인용해 22일 전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 후 약 12만3천 쌍의 동성 부부가 탄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동성 결혼 상태라고 답한 미국인은 98만1천 명으로 대법원 판결 전 73만6천 명보다 24만5천 명(결혼한 12만3천 쌍에 2를 곱한 근삿값), 약 33.2% 증가했다.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이들이 결혼한 비율도 대법원 판결 전 38%에서 49%로 늘었다. 다시 말해 동거하는 동성 커플의 거의 절반이 결혼했다는 뜻이다.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 소수자가 동성 배우자와 혼인하는 비율도 지난해 7.9%에서 올해 9.6%로 상승했다.

갤럽은 동성 부부와 성 소수자가 미국 성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0.4%, 3.9%로 추산했다. 동성 결혼의 대부분은 성 소수자의 해방 무드가 조성된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갤럽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인터뷰를 벌여 결과를 집계했다.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6개월 전과 이후 1년간의 여론 조사 방식으로 성 소수자와 일반인의 결혼 상태를 추적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1~2%포인트다.

PCUSA 정기총회서 '알라'에 기도 논란

미국 장로교(PCUSA) 제222회 정기총회 개최예배 중에 하나님 아닌 '알라'에 기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오리건 주 포틀랜드 오리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 개최예배 중 올랜드 테러사건과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교회 테러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 시간에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 리더인 와지디 세이드(Wajidi Said)씨가 강단에 올라 기도 인도를 했다.

와지디 세이드씨는 전통적인 이슬람 기도문, "알라 신이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곧은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아브라함, 이σμα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 선지자들에게 평화와 있기를 비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테러 희생자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테러 문제나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총회 서기 그라디 파슨스(Grady Parsons) 목사는 "지난 토요일 기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할 수 있음을 안다. 예루메니컬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과와 뜻을 전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NYC 노회가 상정하고 3개 노회가 동의했던 동성애자들에게 교단적으로 사과하자는 현의안(과거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인수를 금지하고 동성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소수자들에게 교단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은 사회정의 분과위원회에서 56대 1의 표결로, '사과(Apology)'가 아닌 '유감(Regret)'을 표명하자는 문구로 수정돼, 총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동총회장 선출에서는 후보 네 명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동총회장 선출된 두 여성 목사 중 데니스 앤더슨 목사가 "예"라고 답했으며 다른 한명의

공동총회장 쟌 에드미스톤 목사는 요14:6을 인용 "예라는 답변이 옳지만 이 구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지만 어떤 크리스천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하실 것이 기쁘다"라고 대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공동총회장 후보였던 매리나 목사와 파커 장로는 "예수가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아니다(Jesus was the way for them personally, but not for everyone)"라고 답했다.

공격당하는 기독교...108개국서 탄압 받아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종교 제한 트렌드'에 따르면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2013년 102개국에서, 2014년 108개국으로 6개국 증가했다. 퓨리서치는 198개국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의 종교 제한 상황을 발표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108개국에서 기독교인은 체포와 구금, 차별과 육체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인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고 고문과 투옥, 억류, 추방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로는 중국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은 정부 당국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게서도 나타났는데 2013년 71개국에서 2014년 85개국으로 증가했다. 타종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은 이스라엘이 가장 심했고, 이어 이라크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아프간 레바논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는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다. 불교가 다수인 사회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웃의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다양한 박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기독교인 공격에 대해 교회 전체가 일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 지난해에만 4000여 명이 보코하람에 의해 살해됐다.

퓨리서치는 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테러리즘을 꼽았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종교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종교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문제로 인한 테러 발생국은 2007년 17개국에서, 2014년 60개국으로 늘었다.

"무슬림 차별 역술하다" ...미 무슬림들 곳곳서 반격

미국 내 무슬림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소송을 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욕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기른 수염 때문에 정당한 한 무슬림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주인공은 올해 10년차 경관인 마수드 시에드(32)다. 파키스탄계 미국인인 그는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출골 수염을 길러왔다. 그의 수염은 약 2.5cm에 달한다.



뉴욕 경찰의 복장 규정은 건강, 종교를 이유로 면도할 수 없을 경우 1mm까지의 수염이 허용되지만, 시에드는 1-2cm까지 길러도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지구대장이 바

꾸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새로 부임한 제임스 코벨 지구대장은 시에드의 수염은 복장 규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몇 차례의 간부회의를 통해 면도를 지시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시에드는 지난해 말 상부에 "나를 비롯해 종교적 이유로 현재의 규정보다 길게 수염을 기른 다른 경찰관들을 합당한 보직으로 발령해 달라"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답장 대신 받은 것은 최후통첩이었다. 시에드는 지난 20일 "내일까지 면도 안 하면 정직"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수염을 자르지 않은 채 총기를 반납하고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22일 "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제도를 바꿔 달라"며 맨해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법원은 뉴욕 경찰에 재판일까지 시에드의 급어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일행이 히잡을 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식당에서 쫓겨난 무슬림 여성 7명이 식당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고 영국 가디언이 소개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주 리구나 해변에 있는 우르스 카페를 찾은 무슬림 여성 7명은 일행 중 6명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했다며 소송을 했다.

식당 측은 이들이 45분으로 제한된 좌석 허용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에 이들 외에도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성이 있었지만 쫓겨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예루살미 변호사는 식당의 주인 중 한 사람인 질라 베르크만이 무슬림이며, 따라서 해당 여성들을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이들이 미국 내 최대 무슬림 이익단체 '미국 이슬람관계협의회(CAIR)'의 사주를 받아 소송을 한 것이며, 이들의 소송은 '문명화된 지하드'라고까지 주장했다. 반면 CAIR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기독교 지도자에게 "클린턴은 종교관 모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1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종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시에서 열린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 초청 비공개회의에서 클린턴이 수십 년 간 공인으로 활동했지만 정작 종교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그는 대중의 시선을 수년 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클린턴 당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이러 "어떤 사람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한다"며 "맞다. 지도자들을 위해, 모두를 위해 기도하자.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할 일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특정 인물에게 투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회의에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의 자유, 낙태, 차기 대법관 임명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은 종교에 관한 직접적 얘기를 꺼려 왔지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이 감리교 신자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북한인권침해 책임자 10여명 제재 추진

미국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정치범수용소에서 극심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범수용소 운영 책임자 10여명을 제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2일 "미 의회에서 지난 2월 18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 따라 행정부는 120일 안에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제

재대상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시한은 지난 17일로 지났지만 실태 파악과 증거수집 등 제재를 위한 조사는 지체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북 제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 작성은 국무부가 담당하고, 제재대상 지정은 국무부가 맡는다"며 "북한의 인권침해 제재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확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의혹 안보리 강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에니스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탄도 미사일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기규제 행동할 때" ...미 민주당의원 연좌농성

22일 오후 10시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의 하원회의실. 단상에 오른 폴 라이언(워싱턴·공화당) 하원의장이 마이크를 켜고 의사일정을 재개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단상 주위에 몰려든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없이 휴회 없다(No Bill, No Break)"는 외침에 묻혀 버렸다. 일부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하자 몇 분 뒤 라이언 의장은 단상에서 내려와야 했다. 의원들은 한국에서도 운동권 가요로 널리 불려진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를 합창하기도 했다.



오전 11시30분부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규제 강화 입법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정상적인 의사진행은 불가능했다. 관행과 규정을 중시하는 미 의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에는 지난 20일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 4건이 부결되고,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도 법안 표결이 불쾌된 데 따른 좌절과 분노가 깔려 있다.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총기규제 입법은 다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조지아) 하원 의원이 농성을 주도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 얼마나 더 많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친구들이 비탄의 눈물을 흘려야 결정을 하겠는가"라며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하원 표결에 동의할 때까지 무기한 연좌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라이언 하원의장은 CNN방송에서 "이목을 끌기 위한 쇼"라고 깎아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총기폭력에 대한 반대를 루이스 의원이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것이 리더십이다"라고 루이스 의원을 칭찬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1)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2)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어야 한다. 객관적 신앙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관적 신앙인은 진리를 아는 일보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에 중점을 둔다. 만일 둘 사이의 조화가 깨지면 기형적인 신앙인이 된다. 주관성을 상실하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객관성을 경시하면 신비주의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으로 인해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왔다. 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변증하였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다.

종류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첫째, 지적 은사들로서 성경상 주로 이론적이고, 교리와 신학에 관련된다. 둘째, 정서적 은사들로서 주로 예배와 직접적인 건덕에서 나타난다. 셋째, 의지의 실제적인 은사들로서 교회, 조직, 정치, 관정에 관련된다. 그러나 은사들은 추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

교회와 성도의 구별된 삶으로서의 경건 회복이 급선무 객관성과 주관성이 조화 이루는 건강한 신앙훈련 필요

질문: 성도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개인의 경건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상을 향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증인의 삶이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 자체를 가리켰다. 그들이 붙잡은 믿음의 도리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드러내야 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꺾박과 순교를 피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에게 경건의 삶이란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다.

몸을 세우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조화롭게 함께 작용한다"(교회사 전집 I, p. 350).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개인의 경건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었고, 나아가서 경건한 개인들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 교회 역사를 보면...

■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경건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다 할 정착기도 없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영적 황무지를 향해 퍼져나갔다. 여기에서 영적 황무지라 함은 단순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 이상이다. 이방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배타적 상황이나 세속화된 문화로 인하여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꺾박하거나 대적하는 경우를 꼬집어 말한다.

초대교회는 사도 시대부터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의지할 것을 가르쳤다. 성령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야 했다. 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그들을 향해 영적 황포를 부리던 세상의 적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지만, 동시에 각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선량한 은사를 폭 넓게 활용하기도 하였다.

■ 성도의 경건과 하나님의 개입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초대교회의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교부들은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교부들의 가르침과 달리 교회 공동체의 삶보다 유발나게 개인의 경건을 강조한 교부들도 있었다.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 경건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오리겐(Origen, 185-254)이다. 알레고리적 성경해석으로 잘 알려진 그의 신학은 신

비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동방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주했던 유대인 종교철학자 필로(Philo, 25BC-25AD)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필로는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접목시키는 일에 집중한 인물로서, 플라톤의 사상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성도의 신앙을 해석하였다. 특별히 그는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

달한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도움이 절대적이다. 인간은 사물을 분별하게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을까? 오리겐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여부이다.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 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불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존재를 주시는 성부의 사역은 각 사람이 지혜로 오를 때 더 찬란하고 감동적인 것으로 입증된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에 참여함으로써 점점 더 순결하고 정결해질수록 지혜와 지성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뒤 모든 오염과 무지의 흔적이 제거되고 도말될 때 그는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결과 완전을 얻도록, 그래서 그 존재가 자신을 존재케 하신 분만큼 가치있게 되도록 배후신 존재가 하나님에 걸맞게 될 정도의 진보를 이룩한다"("원리에 대하여", 1.3.8).

양의 전통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단지 그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다. 또한 성직이 특권적으로 여겨지면서, 소명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경건에 대한 예타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오래전에 소개된 주관적인 신앙의 형태, 즉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에 근거하여 개인적 체험적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경건이 신앙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전제하던 신앙에서, 기존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적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의 형태가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수도원 운동의 기초가 된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고전 12:27; 롬 12:4-5; 요 9:31; 딤후 3:16; 딤후 3:12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한 동방교회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수호하는 진리와 전통보다 성도의 주관적인 신앙,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한 경건이 강조된 것이다. 성도의 경건에 있어서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객관적 내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화되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이 그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개신교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 위기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깊은 영적수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무엇일까? 교회와 성도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회가 지닌 다양한 문제는 결국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로 집약된다. 교회와 성도에게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동시에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커다란 영적 부담이 있다.

■ 313년 이후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일부에서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탁하여 영적인 순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꺾박과 환란 속에서 경건한 모습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과 같이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원리로 삼고 실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성도들이 신앙이 지식을 강조하는 객관적 신앙과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주관적 신앙을 항상 동반되도록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신앙 공동체와 각 성도의 경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9)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성경에서는 아가페와 에로스, 필레오의 구별이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물으셨다. 이에 베드로는 세 번 다 주님을 사랑

한다고 고백했다. 본문(요21:15-17)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대답: "내가 나

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 "내가 나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필레오는 친구간의 사랑이나 이웃 간의 사랑을 말한다. 그것은 절

대적인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도 아니다. 영원한 사랑도 아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만큼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는 결론

이 나온다. 그래서 가끔 설교를 하면서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이성간의 사랑), 스토게(자연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등으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사랑에 대한 철학적 구분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후 200-300년 동안은 아가페와 에로스, 필레오 같은 단어들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간음이라 음란한 관계, 통간 같은 것을 지칭할 때도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11면으로 계속)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김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7:3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세례: 오후 8:00</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세례: 오후 8:00</p>
<p>델델교회 담임목사: 배성종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원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안다목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알킨사 재지들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영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델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허해수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영상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진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립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성영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최현환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0:00, 11:00 수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수요일 10:00, 11:00 세례기도회: 오후 8:00 (월-토) 세례: 오후 8:00 (월-토)</p>

리더십 코멘터리 (2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3 Traits of Selfless Leaders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헌신이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이웃을 위한 개인적인 희생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리더가 되라.

헌신은 강한 신념과 확신이다

리더에게 헌신은 중요하다.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리더들 가운데 헌신하지 않은 리더는 한 명도 없었다. 미 공군의 에드 맥러이(Ed McElroy)는 헌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헌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건 가난이건 또는 재난이건 우리는 결코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헌신의 제 1 특성: 헌신은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헌신도 하기 전에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캔터키 더비(Kentucky Derby), 캔터키 주 루이빌 처칠 다운스에서 열리는 경마 경주) 경마장에서 일어났던 스토리이다. 경주 말들은 첫 반마일을 돌고 나면 산소를 모두 소진하게 되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탁월한 말들만이 경주의 나머지를 전력으로 다해 질주하게 된다고 한다.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NBA의 살아있는 신화,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좋은 선수를 위대한 선수와 갈라놓는 것은 바로 전력을 다하는 마음

을 열어준다.

리더로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반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헌신만이 장애물과 반대를 뛰어넘게 만든다.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빗 맥널리 박사(Dr. David McNally)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헌신은 저항하려는 마음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낙다운(Knockdown)된다 할지라도, 즐기게 일어나 매진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 헌신을 말할 때 분류되는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다.

① 쉽게 포기하는 사람: 목표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다. ② 참여를 꺼리는 사람: 목표에 도달할 것을 의심하면서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③ 낙오된 사람: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④ 총력을 다하는 사람: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리더십의 원리

영향력을 미치는 탁월한 리더, 헌신된 리더가 되려면, 다음을 실천하라.

① 헌신을 측정하라. 우리가 때로 자신이 무엇인가에 헌신하

탁월한 리더에게 꼭 필요한 헌신...사람에게 영감주고 매혹시켜 전심전력으로 행동하며, 삶을 측정하고 끝까지 할 일 생각해야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직업과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권투선수에 헌신이란 다운되어 넘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일어서는 철전활기를 말한다. 마라톤러에게 헌신이란 힘이 조금도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 10마일을 더 뛰는 것이다. 군인에게 헌신이란 저편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목적을 걸고 고지를 향해 돌격하는 것이다. 선교사에게 헌신이란 남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작별하는 것이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헌신하라. 참된 헌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매혹시킨다.

헌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리더로서의 강한 신념과 확신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선 리더로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기 전에, 당신을 리더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한다 것이다. 리더로서 취해야 할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잘 연구하기 바란다.

입니다." 만일 탁월한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헌신의 제 2 특성: 헌신은 행함으로 평가 받는다.

헌신을 말하는 것과 헌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행함이다. 아더 고든(Arthur Gordon)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충고한다. "말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그 말한 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별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판사는 직업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제게 표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424분의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찍으셨다고 말씀하신 316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화요일 투표하러 나오신 47분과, 그리고 실제로 제게 표를 주신 26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헌신한다는 점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헌신의 제 3 특성: 헌신은 성취의 성문

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석해보라. 헌신과 봉사, 가족과 함께, 그리고 건강과 여가 활동 또는 다른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생활비나 문화비, 개인성장을 위해 사용된 비용 또는 남을 돕는데 얼마나 지출했는지 계산해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이다. 누구나 자신의 결과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모든 리더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내가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내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것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자.

이 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통해 당신이 탁월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되길 소원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서신대학교 교)

기도친구들

팔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 오랜 동안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기도했고 담담의사도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이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술 날자가 늦게 잡혀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기를 기도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의 수술이 취소된 덕분에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도 아니었지만 때마침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 수술날짜가 확정될 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술이 주전에 접어든 팔이 "모든 수술에는 다 위험이 있지요"라고 하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묵상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만약에..."라는 불안한 마음이 한 번씩 습격을 했다. 불안은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족임을 잘 알지만 연약한 마음이 들어서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다.

아침부터 에어컨이 세게 나오면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팔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나니 온 몸이 추시고 아프기 시작했다. 동생 같은 집사님이 수술 시간 동안 내가 혼자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말리 샌디 에고까지 점심을 사주고 오셨다. 이번 주말에 있을 딸 결혼식 준비로 한참 마음이 바빠 텐데도 두 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사람이 너무 감사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하시면서 늘 묵상과 말씀 연구에 초점을 두시지만 이곳저곳 집회초청으로 바쁘신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는 메시지로 격려하시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전화를 주셨다.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 전날 집회에서 돌아오셔서 말린 일이 많으실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로 격려하며 챙겨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참 감사했다. 마음 졸이고 기도하다가 수술을 잘 마쳤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전화하신 권사님, 풀타임 사역에 잠 잠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어 하면서도 저녁을 사주고 온 제자 전도사님, 오고 싶는데 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살피시는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 이 모든 분들의 사랑이 어려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믿음의 여정에 다가오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함께 할 기도의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딸은 네 시간 걸린 수술을 잘 마치고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어저께 퇴원을 했다. 의사는 딸이 "젊고 건강하니까"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한 그 힘으로 우리 딸이 수술을 잘 마치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도 해주신 믿음의 친구들에게, 또 그 친구들을 곁에 하락하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원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등문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다이스포라교회 Korean Peoples Bible Center 대표: 권영자 목사 "정신적 용기를 주는 교회" 목회: 권영자 목사 목회실: 오후 2:0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미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차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해방한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45(월-목) 오전 8:30(금)</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일미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침례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은혜한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주님새문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병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월-목) 오전 11:00(금)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도원스프링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월-목) 오전 11:00(금)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월-목) 오후 3:00(금) 신앙강화: 오후 7:30 새 계 기도회: 오후 5:30(월-목) 오전 8:30(금)</p>	<p>미주크리스천신문 협회 후원교회들 있습니다 L.A.: Tel: (323)866-0006 Fax: (323)866-0046 N.Y.: Tel: (718)999-1000 Fax: (718)999-0074 서울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진지한 신앙적 태도

현대 사회를 규명하여 인스턴트 시대라고 부른다. 인스턴트 문화에 족쇄가 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다. '인스턴트 문화' 하면 필자의 머리 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대상이 컵라면이다. 뜨거운 물을 라면 컵에 적당히 붓고 2-3분만 기다리면 금세 익은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는 잘 맞아 떨어지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인스턴트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기독교 진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진리는 그렇게 인스턴트 음식을 대하듯 신속하고 급하게 대면해야 할 가벼운 대상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 진리는 당신의 영원을 좌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인생 자체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 자체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와 영원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는 말이다.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을 너무 가볍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16세기 경건한 신앙인이자 목회자였던 아이작 암부르스는 1650년대 초반에 심한 질병을 겪은 이후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을 저술했다. 질병의 중한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를 빼 속 깊이 체험하였다.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갈망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맛보아 알았던 것이다.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그의 글의 일부를 소개하겠다. "부활 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보라 우리 개인의 다시 살아남이 뎀 레야 뎀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견고하게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무고하는 사탄에 대항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만적인 마음의 기질에 대항해서 얼마나 용기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오 잠자 나를 살리는 원리로 정해진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임을 하나님의 빛에 의해 볼 수 있기 위해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좀 더 자주 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당신을 영원히 살리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 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당신을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여기에 대한 깊은 목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

해 천번 만번을 듣는다 하더라도 당신 안에서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받아들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인스턴트 시대에 몰려 기독교를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의 종교로 인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인스턴트 시대의 치명적 오점은 진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시대는 진지함보다는 신속함의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치달는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속함의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과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이다. 진지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모습 하나 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설교자가 자신 이 선포하는 설교를 기계적인 속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줄 한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선포하게 될 것이

다. 예배드리리는 회중이 감격 없는 메마름과 무거운 중압감으로 울려 지는 예배가 아니라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의 감동으로 드러지게 될 것이다. 영혼의 세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고 파릇 살아나는 듯한 그런 생동감 넘치는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보자.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를 찾는 이들은 진리를 듣고 만나기 위함이다. 인생의 지나가는 세월을 돌아보라. 얼마나 되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는가? 우물쭈물 의식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 당신의 의식을 일으켜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애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 모른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인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최고의 위로가 되게 하라.

newsong6364@gmail.com

“큰 명령! 다함께!” ...총회장 반기열 목사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제35차 정기총회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 제35차 정기총회가 “큰 명령! 다함께!”라는 주제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열려 총회장에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리스한인침례교회)가 선출됐다.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신규임원진들이 인사하고 있다.

첫날 저녁예배는 직전 총회장 위성교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총회장 김상민 목사의 소개로 유영식 총회장(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귀빈 소개가 진행됐다. 21일에는 포럼과 선택강의, 저녁에는 박영철 목사(침신대 교수)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의 말씀찬양이 이어졌다. 22일에는 정기총회가 열려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2017년 36차 총회는 미국중회 장소와 동일 지역에서 같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기로 했다. 임원선거는 총회장 후보로 반기열 목사와 이호영 목사가 출마해 2

회 걸쳐 투표했지만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호영 목사가 양보함에 따라 반기열 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제1부총회장에는 최영이 목사(노버한인침례교회)를 선출했다. △제2부총회장은 오전국 목사가 당선됐지만 본인이 사양해 이호영

목사(씨월드침례교회)가 제 2총회장으로 추천됐다. 또 △서기 박규석 목사 △회계 김경도 목사 △감사 소재훈 목사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신임 총회장 반기열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섬기다 총회장에 당선됐다. 더 역적이고 더욱 복음적인 총회, 화합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하나가 되는 총회를 출마소견으로 밝힌바 있다. 반기열 목사는 “더 역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사수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총회로 인도하겠다”며, △화합하는 총회 △역대 회기 사역들의 계승 △더 많은 교회와 평신도들의 참여 △은퇴 연금제도 소개 및 참여 홍보 △지방회의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미기총 제 18차 정기총회 및 성령성회

7월 5일 오후5시-8일 오전10시 영생장로교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낙신 목사, 미기총)가 주최하는 성령성회가 7월 5일(화) 오후 5시부터 8일(금) 오전 10시까지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고시영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미기총 기도연대 위원장). 미기총은 이 기간 동안 제 18차 정기총회도 개최한다. 임원회 모임은 5일 오후 9시에 열린다. 미기총은 각 교단장과 증경회장단, 각 지역 교협회장과 증경회장 그리고 공인된 선교단체장이 대의원을

된다. 이번 총회에 등록해야 대의원권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는 1인당 100달러이며 등록 및 공한 픽업 등은 주최 측에서 전 통보해야 한다. 7일에는 필라시내 관광과 랭캐스터 성극(삼손) 관람을 선착순 40명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등록은 준비위원장 전영현 목사(484-472-2571)에게 한다. ▲문의: (267)577-0392(사무총장 이대우 목사)

(기사제공: 미기총)

한편 버지니아지방회에서 헌의한 신학교 인준 철회안이 허락됐다. 즉 아이비크리스천칼리지(총장 박용덕)와 버지니아 워싱턴대학교(총장 장만석)의 총회신학교 인준 철회로, 아이비크리스천칼리지와 이단성 시비가 있는 단체의 학교와 교류 및 협력했으며, 버지니아 워싱턴대학교는 침례교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보고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 2016년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개교30주년 미드웨스트대...기념행사 만발

총45명에 학위수여, 지역사회와 뮤직페스티벌도

개교 30주년을 맞은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학위수여식 및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집중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17일 오전 8시30분부터는 글로벌 리더십 포럼(G.L.F), 오후 3시에는 학위수여식이 있었으며, 저녁 7시에는 개교 30주년 기념하는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글로벌 리더십 포럼은 러시아복음주의 기독교 연맹 회장인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미얀마 양곤대학교 Pho Kaung 총장, 뉴욕펀드 Ruhm Jung Roe 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교무처장 오명환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총동창회장 김윤복 박사의 기도, 이사장 Lindell F. Shumake 미

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총장 제임스 송 박사의 격려사, 성일교회 김경곤 목사의 축사, 그리고 Nick Guccione 웬즈빌 시장의 웬즈빌시 명예시민권 수여, 마지막으로 미주 동문회장 강대혁 박사의 축사로 마쳤다. 이번 졸업식에는 김준규(리더십) 박사, 오인숙 박사(기독교상담)를 비롯해 45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됐으며 특별히 Pho Kaung 총장,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회장, Ruhm Jung Roe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또 미얀마 양곤대학교와 미드웨스트대학교의 MOU 체결도 있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서머뮤직 페스티벌은 재학생(박사) 2명과 더불어 지역의 여러 대학교수들,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MUNY오페라, 세인트루이스 메트

로폴리탄 오케스트라의 주자 단원들로 구성된 연주자들과 지역교회 라이어 및 미드웨스트 연합 코러스의 참여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초교파인 IEA는 1983년도에 시작(설립자 제임스 송 목사)됐으며 1986년도에 미드웨스트대학교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IEA 산하에는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워크(WCSN),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게이트웨이대학교(GGU) 등 많은 기관이 있다.

IEA 제58차 목사안수식

IEA(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후보자 교육과 제58차 목사안수식이 16-18일 IEA본부(St. Louis)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은 6명과 전도사 시취자 1명은 미드웨스트 출신을 비롯해 고든 콘웰, 영국 스코틀랜드 뉴칼리지대학교, 풀(Full) 신학교, GGU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재직하거나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있다. 초교파인 IEA는 1983년도에 시작(설립자 제임스 송 목사)됐으며 1986년도에 미드웨스트대학교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IEA 산하에는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워크(WCSN),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게이트웨이대학교(GGU) 등 많은 기관이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제1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행사] [세라 김 사모 (TVNEXT 대표) 노영건 선교사 (미주복음총회) 용기영사 선교사] [문의: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주소: 나성순복음국제성서기도원 (92520) Gunter Rd, Norwalk, CA 92585] [주최: 나성순복음국제성서기도원] [문의: 기도원 (951) 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선착순 150명]

초교파 청소년연합 수련회 열린다

7월 18-20일, 나성순복음교회 주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와 나성순복음국제성서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 부원장 이태준 목사)이 남가주 지역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 초교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갖는다. 7월 18일(월) 오후 3시부터 20일(수) 오후까지 진행되는 본 수련회는 김준근 박사(JAMA 설립자), 새라 김 사모(TVNEXT 대표), 노영건 선교사(미주복음총회)가 강사로 서며, 한국 용기영사 찬양선교단이 찬양을 인도한다. 이 수련회에는 인원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교회나 해당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6-12학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성순복음국제성서기도원은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사회 신앙공체체의 신앙적 열심과 후원으로 발전돼왔음을 감사하며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자 초교파 청소년 여름 연합수련회를 실시하게 됐다. 주최 측은 “이 일에는 많은 예산과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나 나성순복음교회가 한인교계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행사 정원은 150명. 교회단위나 혹은 개인이 참가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지 않는 교회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323)913-4499나 (951)928-44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션스쿨 동문합창제에서 이화여고 동창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특별한친구들교육센터’ 후원위한

제 15회 미션스쿨 동문 합창제 성료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제 15회 미션스쿨 동문 합창제가 6월 26일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은혜롭게 진행됐다. 미션스쿨동문합창단 연합회가 주최하고 정신동문코러스(단장 이정균)가 주관한 본 합창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 특별한친구들교육센터(소장 김환동 목사)를 후원하기 위해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정균 단장의 간단한 소개와 환영인사, 김경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사회 없이 진행된 합창제는 LA송실08남성합창단(단장 고진실)이 ‘시편150편’, ‘시편23편’을 부르며 은혜의 막을 올렸으며, 이화여고동창합창단(단장 정예수)은 감미로운 하모니로 ‘기도’와 ‘오솔길’을 들려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배재코랄(단장 김동진), 송의코러스(단장 박선옥), 대광 큰빛합창단(단장 심현식), 라미션 코이

어(단장 한순자), 경신코랄(단장 나기홍), 경신동문코러스(단장 이정균)가 단에 올라 찬양과 가곡으로 여름밤을 수놓았다. 특히 금란여고 라미션코이아 단원들은 ‘좋은 친구들’, ‘축복하노라’에 이어 ‘아빠의 침중’을 불러 참석한 남성분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다. 15년째 합창제를 이어 오고 있는 동문합창단 연합회는 8개 미션스쿨 합창단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비영리단체 ‘특별한친구들교육센터’는 ‘2016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마음 걷기대회’를 오는 7월 9일(토) 오전 8시30분 그리프스파크 하이킹코스(4730 Crystal Springs Dr.)에서 개최한다. 특별한친구들 교육센터 관련 문의는 (818)445-1755, sfec.org@gmail.com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력), 이준성 목사(2강: 남성), 권준 목사(3강: 여성), 이재환 목사(4강: 사명), 주창국 본부장이며 간증자로 이상훈 목사, 주익성 목사, 정종섭 목사, 석종민 목사가 나섰다. 주창국 LA목회자 아버지학교 본부장은 “지난 2000년에 시작된 미주아버지학교는 지금까지 27,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12기 LA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아버지학교의 6,208차로 모이게 되는 데 하나님께서 가정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가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11면으로계속)

“창문 열고 조국통일위해 기도하라”

6.25한국전 제66주년 기념 추모예배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가 주최하고 남가주 각 단체가 공동주관한 6.25 한국전쟁 제 66주년 기념 추모예배가 25일 오전 11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종용 목사 사회로 시작한 추모예배는 김재욱 목사가 기도했으며 엄규서 목사의 환영사와 알렉스양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허만진 목사의 성경봉독 후 목사장으로 부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김재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김재현 목사(남포월드협회의 회 총재)는 ‘창문을 열고 살다간 사람’(단6: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



6.25 한국전쟁 제 66주년 기념 추모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하고 있는 목사장로 부부합창단. 왼쪽은 말씀을 전한 김재현 목사

혜가 아닌 것이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려주었다. 미국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큰소리

를 치고 있는 이때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평생 창문을 열고 조국을 향해 기도를 쉬지 않은 다니엘처럼 우리도 조국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주목사회 회장 엄규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이를 상기하며 추모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한다. 이제 우리 조국 땅에 싸움과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며 기도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기념사와 추모사가 있는 후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6.25전쟁 희생자와 참전용사 그리고 유가족을 위하여’(생신 목사), ‘조국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하여’(관진 목사), ‘미국 교포사회와 청소년을 위하여’(강지원 목사), ‘조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를 위하여’(송영일 목사)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은혜한인교회 행복목회 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행복목회 세미나가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된다. 강사는 백동주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 본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은 행복목회’라고 선언하고 ‘행복목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등록비는 1인 100달러, 부부는 150달러.

▲문의: (714)-446-1000

월드미션대학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특강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특강이 오는 7월 10일(주)부터 13일(수)까지 열린다.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특강의 강사는 강일준 목사(한양장로교회 담임)이며 등록비는 60달러(강의교재 포함, 7월 1일까지 등록시 50달러).

▲문의: (213)505-1599

사랑방 미션 동성에 관련 세미나

사랑방미션(섬김이 신남식 목사)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 심기’ 세미나를 오는 7월 8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가주성서교회(7032 Orangethrope Ave, Buena Park)에서 실시한다. 세미나 강사는 탈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이며, 세미나는 △동성애 3대 혁명운동 △동성애 성경적 정의 △동성애 복음적 해법에 관하여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달러(오찬과 수강자료 제공).

▲문의: (310)218-6517

홍순관 LA 콘서트

홍순관 LA 콘서트 ‘저기 오는 바람’이 7월 23일(토), 24일(주) 오후 5시에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에서 열린다. 홍순관은 이 공연을 통해 ‘망가진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20달러. 한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는 동요 공연 ‘엄마나라 이야기’도 준비했다. 7월 15일(금) 오후 4시 ‘생명찬교회’에서, 7월 21일(목) 오후 4시에 ‘세계선교회’에서 각각 열리며 입장료는 없다.

www.noah.network

▲문의: (213)700-9932 (714)309-8330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고 있는 소프라노 구영순 씨

소프라노 구영순독창회 성황리에 열려 ‘이민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 주제로

소프라노 구영순 독창회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이민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음악회는 구영순 씨가 ‘강 건너 봄이 오듯’, ‘남촌’, ‘O mio babbino’, ‘Amor ti vieta’,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등을 불렀으며 한곡 한곡이 마칠 때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양곡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영식 목사

LA를 깨우자...주님만이 할 수 있다. 미주양곡교회, 영적각성 대부흥 기도집회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는 23일부터 26일 저녁까지 최영식 목사(서울사랑교회 담임)를 초청, 영적각성 신유대부흥 기도집회를 열었다.

25일 저녁 7시 지용덕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저녁집회는 배철 장로의 기도예 이어 최영식 목사는 ‘생수의 능력’(렘47:6-12)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LA를 깨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 아주사 부흥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길 소원한다”고 말하며,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도망가곤 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달라진 모습을 우리 잘 안다. 이곳 이민 생활도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 주

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돼야 한다.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고 기도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 후 연약한 자들을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이 마련됐다.

본 집회는 주일 1부 오전 7시, ‘만선의 은혜’(눅5:1-7), 2부 ‘다윗이 받은 은혜’(대상 29:10-14), 3부 ‘복된 장마비’(렘34:25-31), 주일 저녁 ‘성령의 능력’(요7:37-79)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갔다.

강사 최영식 목사는 서울사랑교회를 담임하며 광주 갈멜산기도원 원장, 한기부 대표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꿈나무한국학교 발표회에서 어메이징그레이스를 불렀고 있는 이세희어린이(좌)와 중창팀(우)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왕 같은 제사장 사명” 향해 거룩한 비상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설립30주년 임직식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담임 최동진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임직식을 갖고 △장로 이경준 △안수집사 윤성일, 김선주 △권사 김경단, 이필태, 이양숙, 김안나를 선출했다.

임직식에 앞서 최동진 목사 인도로 드려진 감사예배는 김재현 목사(남가주노회 남부시찰장)가 말씀을 전했다. 정성오 목사(보니타한인교회) 권면, 최남영 목사(티와나한인교회) 축사, 칸타모레 중창단의

축가가 있는 후 정진수 목사(로고스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최동진 목사는 “이번 30주년 기념 임직예배를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30세를 맞았으니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향해 거룩한 비상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주신 믿음직한 동역자들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거룩한 역사가 기대된다”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백혈병 치유 어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 남가주든든한교회 부설 꿈나무한국학교 발표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부설 꿈나무한국학교가 봄 학기를 마치며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중강식과 함께 가진 발표회에서 어린이들은 그동안 배운 한글실력을 발휘, 동화를 읽기도 하고 풀꽃 연주와 독창, 중창 등을 학부모들과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백혈병과 사투를 벌여왔던 이세희 어린이가 완쾌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심어 주었다.

남가주든든한교회는 지난해 말 이세희 어린이의 백혈병 치유를 위해 온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에 몰입했으며 일부 남선교회 회원들은 머리를 깎고 세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세희 어린이는 지난 5월 병원에서 완치 판결을 받아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사했다.

남가주꿈나무한국학교는 오는 8월 6일(토)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자세한 문의는(213)339-881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계속)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라(필레오)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요5:20).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필레오)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필레오)”(요16:27).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필레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요20: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아가페)”(마22:39).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아가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이(아가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아가페)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딤후4:10).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이웃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했다. 세상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탐욕을 쫓는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특별한 구별 없이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에로스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도 아가페와 필레오는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사용된 단어가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

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했으나, 베드로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린 것으로 이해해야지, 헬라어의 차이를 가지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랍어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랍어를 복음서 기록 과정에서 헬라어로 옮긴 것이다. 아랍어에는 아가페나 필레오 같은 구분이 없다. 예수님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복음서 기록과정에서 별 뜻 없이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jinhlee1004@yahoo.com



제12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연다

(9면에서계속)

준비위원장 박세현 목사는 “아버지학교는 참가하는 것도 가정의 화

복과 성경적 아버지의 이미지 정립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는 것 외에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중 하나가 수료생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아버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립해나갔으면 한다”며 목회자 아버지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의 봉사자참여를 부탁했다.

미주두란노아버지학교는 지난 1

월 시무예배 후 3월 미주두란노 아버지학교 지도자대회, 4월 사모님 위로행사, 4월부터 6월까지 미주두란노아버지학교를 개최해왔으며 9월에는 감사 헌신자 스쿨을 준비 중에 있다.

제12기 LA 목회자아버지학교 등록비는 120달러(사전등록시 100달러)다.

▲문의: 김인구 목사 (213)700-4689

(박준호 기자)

담임 목사님 청빙

Omaha 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maha)
www.kpcomaha.org

오마하한인장로교회는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교회들 섬기기를 열망하는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저희 교회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이며, Nebraska주의 중심 도시인 Omaha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소개서(Ministry Information Form)는 pcusa.org/clc 클릭 후, MIF ID: 10660를 참조).

제출서류 (한글과 영문)

- PCUSA PIF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2 Pages 이내), 가족사진
- 신앙여정과 신앙고백서 (각 2 Pages 이내)
- 목회비전 (각 2 Pages 이내)
-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일자와 CPM의 목사후보 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DVD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3명의 추천서
- 영주권 사본 제출 (영주권소유자 경우)

제출 서류/자료는 비밀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자에게는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현재 PCUSA 목사 또는 가인이 가능하신 목사
-성경 신학대학원 M.Div. 학위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유하신 분
-한국어 설교와 영어로 기본 미사소통 가능자

보내실 곳: Dr. Hella Kim (Email: hallakim@unomaha.edu)
Search Chair of the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2506 Harney Circle, Omaha, NE 68154

교회 주소: 14015 Q St, Omaha, NE 68137 전화: (402) 733-3383

올 여름성경학교 준비 3대 포인트

“하나님 자녀 긍지·신앙 새싹 키울 기회로”

여름성경학교는 다음세대인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한국교회 절기 교육 프로그램의 대명사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요 교단과 교회는 올 여름성경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①다음세대 인성·성품교육 ②진리교육으로 믿음 강화 ③도시·농촌교회 함께

◇‘인성·성품교육이 핵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2016년 여름교육 주제를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로 정하고 단계별 사역 매뉴얼을 준비했다. 매뉴얼은 5월 기획수립 단계부터 9월 사후관리 단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시기별 과제와 일정별 추진 전략들을 제시해 크리스천으로서 성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교역자용 및 교사용 매뉴얼과 별도로 담임목사용 매뉴얼을 제작해 담임목사가 ‘다음세대 신앙 확립’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기독교 성품교육을 직접 지휘하게 했다. 총회교육진흥원장 노재경 목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 알코올·신드롬 등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다음세대에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도 여름성경학교의 초점을 다음세대 성품교육에 두고 핵심 키워드를 ‘화해’로 정했다. 총회교육자원부는 3개의 과로 이뤄진 청소년부 교재를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를 준비하라’ ‘화해를 실

행하라’로 구성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의 이름도 ‘썬마미블 화해탐험대’로 지었다. 교육자원부 관계자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화해를 이끌어내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앙관 흔들릴수록 진리 교육해야’=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여성삼 목사)는 자체 개발한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BCM(Body of Christ Model)’을 통해 여름 캠프 및 수련회 자료를 제공한다. BCM은 기성 교단 100주년을 맞아 서울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4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교육과정으로 교회학교와 교사대학, 목회자 양성을 위한 공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기성 총회교육부장 허상봉 목사는 “시대가 혼탁하고 다음세대 신앙교육이 흔들릴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육국은 지난달 여름성경학교 교재 ‘King’s Way, 예수님과 만나는 길’을 출간하고 산하 교회들의 여론나기를 듣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는 전국 각지를 돌며 교사들에게 교재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교사강습회도 열고 있다.

기감 교육국 관계자는 “이번 교재에선 성서의 역사성을 전달하기 위해 지도를 많이 활용했다”며 “성서 속 지역 명칭을 활용한 공부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도시·농촌교회 함께해요!’=여름방학 동안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협력은 올해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기감 청년회전국연합회는 도시교회 청년들이 농촌교회를 방문해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농촌 일손도 돕는 ‘제11차 감리교청년체협수련회’를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 2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이 각각 전국 각지의 농촌교회로 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교회가 방학 때면 해외선교에만 집중하는데 농촌교회 역시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명달로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의 경우 7월엔 청년들이 농촌교회에 봉사활동을 가고 8월엔 농촌교회를 서울로 초청해 여름성경학교를 연다. 올해는 전남 광양 신항중앙교회(조형민 목사) 어린이들과 교사 20여명이 초대받았다. 초대된 어린이와 교사들은 1박2일 동안 남산, 동대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관선 목사는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에 늘 빛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아 여름성경학교를 여는 것 자체가 힘든 교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 문화행사 아닌 저급한 성박람회”

지방서 유일한 동성애 행사...대건연 반대행사도 열려

26일 오후 대구 동성로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 홍보하려는 동성애자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로 혼잡했다. ‘대구의 명동’으로 불리는 이곳 동성로는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대구시민들은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축제를 막기 위해 이달 초 자발적으로 대구건강한사회를위한연합회(이하 대건연)를 결성했다. 대건연 회원과 시민 등 2000여명은 이날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 모여 동성애의 폐해, 남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등을 고발했다.

이날 설교를 한 김중원 경산중앙교회 목사는 “기독교와 퀴어가 대립한다는 이미지도 물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캠페인과 문화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게 동성애의 문제를 알리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배 후 호국의 달 기념행사와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탈북민의 간증, 에이즈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동영상 상영과 강의 등도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박성근 대건연 사

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인권, 혐오, 성소수자 논리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뜯어보면 부도덕한 성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논리일 뿐”이라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대구 퀴어축제에 맞서 시민들은 ‘동성애에 이직 약값 국민 헬스로 절대 낼 수 없다’ ‘동성애 에이즈 치료비 전액 지원, 국고 손실을 막읍시다’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청년 1500여명은 대구 동신교회(권순수 목사)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등이 제작한 팻말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영남대 퀴어 동아리 유니크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대구지역본부 등 21개 단체는 동성애에 부스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인 성문화가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부스에선 콘돔을 나눠주고 술도 판매했다. 특히 ‘은하선 토이즈’ 부스에선 남성 성기모양의 성인용품을 9만~19만원에 판매했다.

현장에는 무지개인권연대, 한국

레즈비언상담소, 서울인권영화제,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성애 운동가들이 대거 내려왔다. 한 참가자는 “예수천국 차별혐오 지역” ‘혐오 폭력권 지역 가리라’는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면서 기독교인을 조롱했다.

이병노(40)씨는 “동성애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대구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41)씨도 “이런 음란한 행사에 어떻게 문화축제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다. 대구퀴어 축제는 한마디로 음란한 성박람회였다”면서 “공공장소인 동성애에서 다니는 이런 저급한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대구 중구청과 경찰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성애자들은 이날 대구백화점 앞 광장을 출발해 경대병원역 내거리 등을 거쳐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퀴어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때 퍼레이드 차량에 탑승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경찰은 15개 중대 1000명의 경력을 투입해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보초했다.

신천지, 7월 1일 서울광장 집회 갑자기 취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다음 달 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전격 취소했다. 신천지는 이날 한국교회의 이단상담 활동을 ‘인권유린’이라고 공격하며 ‘강제개종피해자연합회 문화행사’를 개최하려 했다.

신천지 고위관계자는 2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행사를 최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신천지는 강제개종교육피

해자연대(강피연)를 앞세워 행사를 열려고 했다. 강피연은 신천지 신도들로 구성된 위장 시민단체로 이단상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2007년 결성됐다. 이 단체는 그동안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규탄 및 개종목사 처벌 쟁점대회, 1인 시위 등을 개최해왔다.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서울광장이 신고제이다 보니 동성애자들은 물론 사이버 이단가

지 시민의 공적 공간을 제멋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광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천지가 행사를 취소한 전후사정은 분명치 않지만 한국교회가 하나 돼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적극 대처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교회학생 줄어드는 이유...

성도 셋 중 한 명꼴 “공부 중압감 때문”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목회자와 성도의 생각은 크게 달랐다.

한국기독교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과 ㈜지앤케이서치(대표 지용근)가 지난해 11월 목회자 100명, 성도 9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도들은 교회학교 학생 감소의 원인을 ‘공부·학원에 대한 중압감’(26.6%) ‘저출산의 인구구조 변화’(19.7%) ‘신앙교육에 대한



처럼 동성애 확산과 이슬람 유입 등의 도전 앞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최복규(한국중앙교회 원로목사) 전 총회장은 설교에서 “지금 은 기도할 때다. 위기의 나라와 민족,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자”며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성회에선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동성애 옹호·조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렸다.

예배 후에는 3가지 주제로 설교와 기도를 이어갔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설교 최낙중, 기도 한상윤 목사)’ ‘이슬람 포교 및 할랄 식품 단지 건립 반대(설교 유종국, 기도 박성대 목사)’ ‘총회와 산하 학원, 한국교회를 위하여(설교 이종승, 기도 이태운 목사)’ 등이다.

한편 예정대신 총회는 기도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를 주제로 특별기도회를 열고 총회의 화합과 부흥, 십자가 신앙 등을 위해 기도한다.

가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다. 웨일스와 잉글랜드 시골은 울리버 크롬웰이 유럽 대륙 가문의 후예인 왕들을 공격할 때 지지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이민 배척주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미국의 유사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일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보리스 존슨과 나이젤 파리지와 마찬가지로 반(反)글로벌리즘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들은 몰려오는 이민자들, 글로벌 기업의 무역 지배, 테러리즘은 이슬람교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무슬림들의 주장 그리고 국제주의적 지식인과 자본의 권력 통제가 맞고 있다.

이제까지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지역이었던 남부와 산악 지대뿐 아니라 이민자 인구가 비교적 적으며 옛날 방식에 충성하고

부모 인식 약화’(18.7%) ‘교회교육 수준 약화’(17.2%) 등에서 골고루 찾았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교회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것이 주로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 약화’(43%)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스바’는 구약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한 곳(삼상7:5)이다. 이날 성회에서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2000여명의 참석자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

를 개회했다.

백인들에게 남아 있는 부족적 믿음에서 나온 저항의 외침이다. 그리고 EU를 떠나겠다는 영국의 결정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국수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든다.

영국 투표 결과를 보면 브렉시트가 영국에서 쉽게 승리를 거뒀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시골에서, 이민 문화와 글로벌리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전통적 마을과 도시에서 우세했다.

브렉시트는 웨일스에서도 지지 받았다. 역사적으로 웨일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오래된 옛 영국의 종교 및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 전까지

20여개국 청년들, 말씀 나누며 선교열정 불태운다

‘선교한국대회’ 한 달여 앞으로... 8월 1일부터 6일간

‘2016 선교한국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대회는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며 ‘선교 한국’을 견인해왔다. 현재 활동 중인 2만7000여 명의 선교사 가운데 40%가 선교한국대회 출신으로 추정될 정도다.

대회는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열정과 사명을 심어주고,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캠퍼스 선교가 어려워지고, 청년층의 선교사 지원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선교한국대회는 ‘청년 선교’ 동원의 최후 보루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대회는 올해 서울 광진구 세종대 캠퍼스에서 8월 1일부터 5박 6일간 펼쳐진다. 대회는 두 가지 점에서 역대 모임과 차별을 보인다.

◇탁월한 메시지와 프로그램=선교한국대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성경강해 메시지와 풍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 주강사는 모두 6명이다. 성경강해는 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커크 프랭클린 윌리프스플로 벌연맹(WGA) 총재와 미국 어바나 책임자이자 차기 기독교학생회(IVF) 대표로 선출될 대만계 미국인 톰 린 부대표, 손꼽히는 강해설교자 화종부(남서울교회) 목사가 성경강해를 맡는다. 김용훈(미국 열린문교회) 목사와 이민을 천명한 선교사도 주제 강의에 나선다.

올해 선교한국대회의 주제는 ‘그런즉 우리도! (Let us, then)’(히13:13)이다. 주강사들은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역설한다. 주강의 외에도 대회에서는 117개의 영역별 강의를 펼

쳐진다. 현장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선교의 실재를 소개한다.

이번 선교한국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들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션 콤플렉스’다. 8월 2~4일 오후 2~5시 세종대 교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바람화+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교한국 이대행 상임위원장은 “선교는 비행을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콘셉트를 갖고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미션 콤플렉스는 ‘기도의 벽’ 한국선교 역사관 ‘다이내믹 배움터’ ‘움직이는 지구’ ‘미션 영상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움직이는 지구’의 경우 전 세계 이슈를 한눈에 보여준다. 난민과 이주

민에 대한 자료와 영상, 기획물 전시는 그 중 하나다.

하이라이트는 8월 3일 진행되는 ‘선교 한마당’이다. 선교 한마당은 토크 퀴즈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을 살렸다. ‘미션 서바이벌’ ‘미션 골든벨’ ‘미션 게임 존’ ‘미션 버스킹’ ‘지구촌 시장터’ 등 10개 프로그램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미션 버스킹의 경우 대학로나 홍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공연 한마당이 연출된다. 저녁집회는 국내에선 보기 힘든 다국적 예배 형태로 진행된다. 톰 린 부대표가 나와 마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출신 국가가 다른 국제 워십팀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만국기를 흔들며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선교한국에서 ‘선교아시아’로=선교한국대회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세계화되기 시작했다. 대회 참가자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20여개국에서 참가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미얀마 중국 아프리카가 등이다.

한국으로 유학 온 신학생들도 초청된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교운동에 참가해 귀국 후 유사한 선교대회나 선교 동원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대만의 경우 2014년부터 선교한국대회를 벤치마킹해 자체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missionkorea.org)

영국 브렉시트 찬성, 반(反)글로벌리즘 상징

(2면에서계속)

(Will Britain's American Children Follow The Mother Country's Populism?: The shouts of defiance that shaped the Brexit victory may carry across the Atlantic, with implications for Donald Trump and the U.S.).

영국과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 심장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제국-하나의 사라져가고, 하나는 버티고 있다-은 수세기째 걸친 역사를 공유하며, 리더이자 키프링이 백인의 집이라고 부른 이상이 귀한 유산이며 신성한 정체성인 제국의 문화 역시 공유하고 있다.

영국 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온 것은 앵글로-아메리칸

이제 영국과 미국 백인의 집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문화적이고 글로벌한 정체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11월, 미국 유권자들이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따라 저항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 보인다.

이제 영국과 미국 백인의 집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문화적이고 글로벌한 정체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11월, 미국 유권자들이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따라 저항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 보인다.

저항의 외침이다. 트럼프 역시 브렉시트를 어느 정도는 지지했음은 놀랍지 않다.

‘EU에 남자’고 투표한 스코틀랜드는 이제 영국을 떠나려 할 것이며,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투자한 도널드 트럼프를 칭송했던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를 경멸한다.

저항의 외침이다. 트럼프 역시 브렉시트를 어느 정도는 지지했음은 놀랍지 않다.

이제 영국과 미국 백인의 집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문화적이고 글로벌한 정체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 따른 교회 대처 방안 (4)



시니어즈블레스라이프 원장 김병호 목사

동질집단 원리를 통한 노인목회사역 제언

동질집단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인간 사회는 현대와 미래 사회에 관계성이 확장되며 복잡 및 다양해진다. 맥가브란(D. A. McGavran)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 이해"에서 도시 교회성장의 여덟 가지 열쇠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다섯 번째로서 "부족, 카스트, 언어별 교회들을 증가시켜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환경들에서는 동질적인 단위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성장의 열쇠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복음 수용적인 무리는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에 익숙하지 못해 상실감을 갖는다. 비록 어느 정도 표준어를 할 줄 알라도 모국어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McGavran 1987:447). 즉, 동질집단 원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동일한 문화적, 의식적 배경이 서로 부담 없이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그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 한인교회들의 특성을 보면 좁게는 너무도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한인 음식집을 주로 찾으며,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초, 중, 고)나 주거지로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본다. 그러다 보니 대형 한인 마켓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좋은 장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동질집단 원리를 바탕으로 노인목회를 한다면 갈 길이 없는 노인들이나 언어의 장벽으로 고통스러운 분들에게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해도 먼저 효과적인 노인목회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편견적인 선입관에 자리를 잡게 하고 있다. 편견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끼고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며

용해야 한다.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은 무형의 자산이다. 많은 시간을 거쳐 시행착오를 거쳐 체득한 체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전통적인 신앙 자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 믿음의 순수함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도 보면 목회자 사이에도 노인들을 좀 우습게 여겨서 모를 것이라고 여겼는데, 앞에서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과 그들의 생각들을 말

이나 한방의원들과 연계해서 한 달에 한번씩 봉사로 노인들을 치료 및 상담을 해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만을 위한 영적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미국에 엘더호스텔(Elderhostel, www.elderhostel.org)이라는 유명한 노인교육이 있다. 여행과 학습을 합쳐놓은 것인데, 여행지가 학습의 장이 되고 머무르는 곳이 교실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크루즈선을 타고 가는 비싼 프로그램도 있고, 방학 때 대학의 빈 캠퍼스와 기숙사를 활용해 거기에 배이스캠프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근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의 주제가 다양한데, 엘

식물원, 해변과 섬, 산을 탐사하며 생명과 환경이 소중함을 경험하고 세대 간의 교류에도 도움을 주는 세대간 프로그램이 있고, 다섯 번째는 예술이나 문학부터 대체의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여의 관점에서 배우고 토론하는 여성전용(women only) 프로그램 등 40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과정은 참가자의 건강과 활동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나뉘어 실행하고 있다. 가격은 하루짜리 프로그램이 100달러 안팎으로 하고 보통 600달러를 넘지 않지만 3000-4000달러짜리 해외여행이나 선상모험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에서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을 연계해 한국형 엘더호스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했고 노인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던 같다. 또 하나는 노인들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도 결실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인 동질집단이기에 더 친밀감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의의하게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동질집단이라고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노인 경험 최대한 존중하며 활용...시설투자도 계속 야외모험활동 등 여가활동 살린 영적 여행도 바람직

할 때를 보면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님을 본다. 때문에 우리들은 노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도 계속해야 한다. 교회의 건물 구조가 노인들이 모임을 갖거나 활동하기에 적합한가를 살펴야 한다. 노년부를 위한 특별배려도 필요하다. 노인들 전용 큰 글씨의 주보, 미국은 대체로 어두운 편이니가 더 밝은 조명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한 무료 보청기나 깨끗하게 들리는 스피커와 마이크 설치, 냉온 방 시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안마 의자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설문지 조사의 결과에도 나왔듯이 프로그램의 종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노년기의 여가 활동이 제일 높았고, 건강관리와 예방 그리고 종교생활과 여행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지만 노인의 여가 활동과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정체감을 회복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교회 안에서 한방이나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인사역

더호스텔에서 딱 한 가지 금지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노년학이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건강에 대한 강좌가 가장 선호가 높은 것을 보면 노화 자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의 인생을 조망해보는 자서전쓰기도 인기 강좌이다.

좀 더 소개를 하면, 첫째, 야외모험활동(outdoor adventures) 프로그램으로 하이킹, 자전거 타기, 수영, 레프팅, 스키, 사냥,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야외 모험 활동 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북미탐험(exploring north America)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문화유적, 경치, 문화와 예술, 음식과 와인, 집과 정원, 국립공원, 명문 도시 등 7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 '테마여행'을 떠나는 북미탐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선상모험(adventure afloat) 프로그램에서는 에게해에서 미시시피강, 남극에서 프랑스 운하까지 갖가지 코스에서 역사, 문화, 예술, 문학, 상해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기는 선상모험이 있고, 네 번째로는 세대간(inter-generational) 프로그램으로 조부모, 부모, 이모, 삼촌 등 성인가족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

서였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1년 2차례 미국 서부여행을 떠난다. 계절로는 봄에 3박4일 일정이고, 가을에는 1박 내지 1박2일로 LA근방으로 간다. 그런데 생각 외로 고집들도 세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죽어도(?) 같은 방 배정을 안 받으려고 한다.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저마다 상이한 인생경험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통해 굳어진 것 같다. 이같은 특성이 다양성의 원천으로 본다면 노인집단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저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에 무조건 동질집단이라 하고 무지 말고 서로의 성격과 성향이 같은 분들로 팀을 짜주면 좋은 친구이자 형님·동생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형님·아우로 부르는 경향이 더 많다.

〈끝〉
bhkim0691@gmail.com

[알림] 본 칼럼 2회와 3회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이 있었음을 필자와 독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무슬림, 16년간 800만명 기독교로 회심

데이비드 게리슨 선교사 '프리미어크리스챤네티' 6월호 기고

○...이란 여성 나디아는 두 오빠 문제로 절망하고 있었다. 한 명은 살인죄로 감옥에 갔고 다른 한 명은 자살했다. 오빠들은 마약 중독자였다. 어느 날 삼촌이 찾아와 이란어 신약성경을 주고 갔다. 절망 속에 있던 그녀는 성경을 읽었고 행안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크바는 파키스탄 국경의 난민 캠프에서 어느 날 '예수' 영화를 보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복수 대신 긍휼과 용서를 선포했다. 그는 탄복했고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그는

로 인도됐다. 하산이라는 세이크는 아랍어로 기록된 '인질(신약성경)'을 읽고 그날 밤 세 차려나 같은 꿈을 꿴다.

이집트 전통 기독교인 콥트교 자카리아 주교는 방송전도로 유명하다. 그의 설교로 수천명의 무슬림이 복음을 수용했다. 특히 나사르라는 청년은 전도를 거둬 2845명이 변화를 받았다. 북아프리카 알제리는 1991년 내전 이후 수천명의 베르베르인이 영화와 방송, 개인전도 등으로 기독교인이 됐다.

파키스탄에선 최근 20년간 수만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다.



이름을 아크바 알마시(메시아는 위대하다)로 바꿨다.

이슬람 세계에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성경을 읽었고 방송이나 영화, 꿈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최근엔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염증으로 이탈하고 있다.

교회 역사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게리슨은 최근 '프리미어 크리스챤네티' 6월호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무슬림은 전 세계적 현상'이란 글을 기고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지난 25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800만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게리슨은 미국남침례회 소속 개척 선교사로 30년간 일했으며 2012년에는 '이슬람의 집에 부는 바람'이란 책을 통해, 직접 만난 1000여 개종자들의 회심 과정을 소개했다.

게리슨 선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세이크'라 불리는 이슬람 지도자가 회심하면서 400명의 세이크를 복음으

로 인도네시아 중부의 한 도시에서는 미국인 선교사의 대화식 전도법으로 2만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으며 1500개 이상의 기독교 모임이 시작됐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선 노르웨이 선교사가 무슬림 청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10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이슬람권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들도 동의하고 있다. 김동문 선교사는 "무슬림들의 대량 회심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이 됐다"며 "특히 이슬람 내부의 개혁 운동과 맞물리면서 이에 자각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혼동 속에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을 비롯해 극단주의자와 온건주의자의 대립, 직업을 갖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환상이 깨진 여성들의 불만족 등이 분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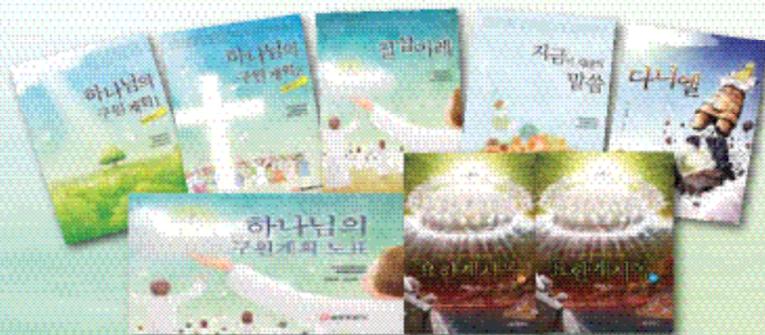
게리슨 선교사는 "무슬림들의 회심 유행은 69가지로 나타난다. 지금은 하나님이 무슬림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시기"라며 "우리 이웃인 무슬림을 두려워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자"고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목사: 라홍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선교 펴기

파푸아뉴기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이 나라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에서 북서쪽으로 4시간가량 자동차로 달려가서 만나게 되는 '와이마' 부족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작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남태평양 바닷가에 야자나무 숲과 어우러져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삶이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언 30년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2003년 '와이마' 신앙성경 봉헌 후, 저희 부부가 인근 부족 언어 부족들이 나라, 가비디, 도우라 부족들을 향해 사역 방향을 바꾼 후, 이 와이마 부족 마을은 자주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도우면서, 현지인 동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25일부터 며칠 동안, 거의 일년 만에 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음식을 해가지고 오며 저희를 반갑게 반겨주는 사람들, 주일에 가득 찬 예

배당의 성도들 모습, 아이들의 밝은 모습,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감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남수 선교사는 성경번역위원회의 모임을 갖고 앞으로 계획을 나누기도 하고, 주일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이택신 선교사는 오랜만에 마을의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손도 잡아주고, 아줌마들과 수다도 떨면서 비록 짧아서 아쉬웠으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와이마 부족의 구약성경번역은 이곳 연합교회 노회소속의 한 사역으로 추진하기로 한다는 반가운 결정과 더 많은 자원 번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비디 부족마을을 방문하여, 아로 추장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서 힘든 고비를 넘겼으나 아직도 온전한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초역된 성경의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컴퓨터를 하지 못했던, 이젠 할머니가 된 부인이 컴퓨터를 켜고, 그급까지 작업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로



추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하나님말씀이 어찌 이렇게 명확한지요! 영어로 읽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경 번역을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베드로 전후서를 모두 보니 너무 좋아요! 힘들지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확신에 찬 추장의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신서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정립되었다며 젊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도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읽어주니 설교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씀이 주는 능력을 보여 감사하였습니다. 아로 추장의 소원대로 건강을 주셔서, 속히 가비디 부족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마오니아와 모레아 두 형제들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역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나라부족의 두 형제들, 알리와 아우아가 본부에 올라와서 요한계시록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말씀으로만 여겼던 이들은 김남수 선교사와 매일매일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처럼 자기들이 꿈에 꾸고 있는 것 같다,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어린양 앞에 서서 찬양할 그날이 기대된다고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번역한 내용

을 가지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라부족의 오로이 마을에서는 예배당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번역도, 교회 건축도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어사역부대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택신 선교사는 지난 5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 선교부의 방향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파푸아뉴기니 언어사역부의 다양한 사역으로 분주하지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들의 사역지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여러 지역 사역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과 다른 부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통하며 협력하는 일 등등. 잦은 여행과 회의로 지칠 때가 많은데 주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의 짧은 안식월을 한국에서 보내고, 4월 3일 이곳 파푸아뉴기니에 다시 돌아와서 분주한 2개월을 보냈습니다. 아쉽고, 죄송하게도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심한 기온차로 감기에 이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로하신 형제들(김남수 선교사 형, 누님들), 저희의 돌봄이 필요했던 이택신 선교사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양관에 가서 말씀으로 충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

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15:5말씀).



이곳 와이마 부족마을에 주령주령 열린 빵 열매(Bread Fruit)입니다. 이 열매가 좀 더 크게 자라면 따서, 삶거나 불에 구우면 빵처럼, 구수하고 약간 달콤한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빵이 나무에 열리는 것이지요. 처음에 얼마나 신기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사역의 열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놀라움 가운데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번역 사역의 속도가 느린 것 같고,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들의 삶이나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실망이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빵 열매를 열리게 하셔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교회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께 접붙여진 가지로서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시는 여름이 되길 기도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김남수/이택신 선교사 드림.
ns-ds.kim@sil.org.pg
duckshinkim@gmail.com

감사, 기도제목

1. 1월부터 3개월간의 안식월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개인, 가족들이 분주한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도록.

2. 와이마 부족: 번역자문위원 훈련 중에 있는 우오 형제가 3월 한달, 성경주해 훈련과정을 잘 이수하게 됨을 감사,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자문점검 실습 등을 감당하며 구약을 번역하는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주부와 마틴을 중심으로 창세기 자문점검 준비와 여호수아서 번역 가운데 팀들의 연합을 위해서.

3. 나라 부족: 알리와 아우아 형제들이 번역훈련 3과정 준비를 위한 구약 여러 부분의 400절 초역을 마치고, 다시 4월19일-5월20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번역/수정작업을 마치게 됨을 감사. 다음 단계인 부족 마을 사람들과 번역의 자연스러운 점검과 역번역을 위해, 오로이 마을의 교회 건축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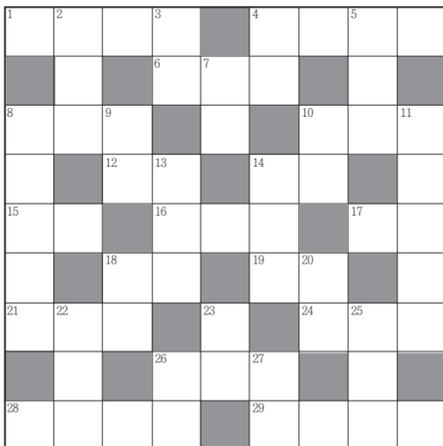
4. 가비디 부족: 요한복음, 베드로 전후서, 에베소서 수정작업을 마치게 됨에 감사. 누가복음의 수정작업과 요한복음의 역 번역, 마가복음 자문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아로 추장과 수정작업 팀, 그리고 마오니아와 모레아가 역번역을 잘 감당하도록.

5. 여러 부족팀들을 도우면서,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김남수 선교사와 언어사역부대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택신 선교사에게 붙여진 가지로서 풍성한 가을을 잃지 않는 건강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6. 연로하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자녀들(희란/데릭 목사, 한나/양명철 선교사)가정이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도록.

십자말 • Cross Word (130)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율이 고운 삼베로 만든 휘저(창27:9).
4.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아니함(느6:10).
6.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 부근에 있는 동리(삼하17:27).
8. 블레셋 평원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성(행27:13).
10. 제사장 바스홀의 아버지(렘38:6).
12. 아주 오랜 세대(사41:4).
14.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받는 세금(마17:25).
15. 이제. 시방(창7:4).
16. 테를 동글게 결은 대 그릇(삿6:19).
17. 울바른 동리(대하14:2).
18. 굳이 사양함(왕하5:16).
19. 오장육부의 준 말(창29:17).
21. 다비다. 죽었던 그를 베드로가 다시 살림(행9:41).
24.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신(막10:45).
26. 다윗의 숙부인데, 모사오 서기관이다. 성경에 동명인이 많다(대상27:32).
28.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대상4:36).
29. 거룩한 것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제물(레19:21).

<세로 푸는 열쇠>

2. 아모리족속 아벨과 에스골의 형제이다(창14:13).
3. 나이가 많고 턱이 높은 살람을 일컫는 말(창50:7).
4. 머리 털(렘48:37).
5. 깨닫지 않고 더러운 기한(레15:25).
7.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 췌던 곳(민33:27).
8. 그러할지라도(사9:12).
9. 엘리바스의 아들이며 예서의 손자(창36:11).
10. 쇠퇴하고 망해가는 세상(렘1:20).
11.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을 좀 달라고 한 우물의 이름(요4:6).
12. 큰 일과 작은 일(삼상20:2).
14. 관직의 하나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우두머리를 일컫음(왕상4:5).
18. 샷전. 품삯(렘22:13).
20. 큰 자루(마9:17).
22. 아라비아족속 이름. 드단에서 나온(창25:3).
23. 시몬의 아들로 갈렙의 조상(대상4:20).
25. 살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창29:14).
26. 사무엘의 장자로 사사가 되어 뇌물을 취함(삼상8:2).
27. 경계를 단단히 하여 다 짐(시32:9).

십자말 정답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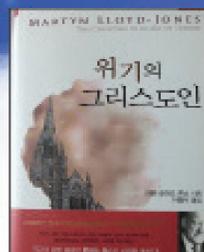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 아젠티(뉴욕, 미국)
- 유엔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복음, 박영선 지, 두란노



위기의 그리스도인, 마틴 로이드존스 지, 지평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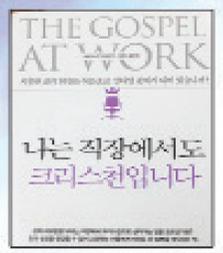
치마복, 켈 가이저 지, 디모데



직실, 박영선 지, 두란노



뿌리 깊은 영성, 강준민 지, 두란노



나는 직장에서 크리스천입니다, 배철호 지, 생명의말씀사

추천 기독교서점협회 *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돕는 배필, '에제르'의 역할을 잘하자

1. 에제르의 뜻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다. 여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는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모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인 남편에게 가려지고 남모르게 고난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 앞에 서야 하는 때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는 더욱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고

하였으니 영부인이 되었지, 저 친구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이 시골에서 가사나 넣고 있었을 거야"라고 했다. 그때 힐러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지요. 내가 저 친구하고 결혼을 하였더라면 저 친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었지요" 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제르'가 되자. "세계는 남자를 움직이 나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자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5)



이희숙 사모

데 그 뜻은 '돕는 자'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된 말이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보내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다.

성경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히13:6, 시 33:20)고 할 때 사용된 단어로 '에제르'이다. 아내가 남편의 '돕는 자'라고 할 때와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할 때 똑같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보통 돕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편 목사의 '에제르'로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도와주라고 사모들 세워 주셨다.

주님의 사랑을 더 넘치게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사모는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 아내를 남편 목사의 '에제르' 즉 돕는 배필로, 응원군으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좋은 '에제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모

1)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내인 사모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칠 때 남편 목사를 도울 수 있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잡언 31장에 서술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다소곳하고 양전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여성이 아니라 가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으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이다. 능력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지도력을 가진 현대적인 여성이다. 지도력은 지배력이 아니

는 여자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2) 남편을 가정의 머리(Head)로 세워주어야 한다.

크리스천이 된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자기의 머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오히려 더 갈등을 느낀다고 하는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러나 이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므로 부인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나의 머리는 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일까?"라고 불평한다 는 것이다. 즉 나의 머리되는 남편이 다른 남편처럼 바르며 있고 카리스마도 넘치면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텐데, 재력이 없고 결단력도 없이 아내인 자기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약한 남편을 어떻게 머리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원망이 생긴다

예를 들어 남편 목사가 기도를 잘 안하고 기도가 약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바로 그 점을 돕기 위한 '에제르'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남편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에 전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모들이 남편 목사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실망부터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 나의 남편이 완벽해서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돕는 배필로서 그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도울 수 있다. 나는 남편에게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를 들어 남편 목사가 기도를 잘 안하고 기도가 약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바로 그 점을 돕기 위한 '에제르'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남편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에 전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제르'라는 말에는 '응원군'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 응원군은 전쟁에서 아군이 패배의 위기에 있을 때 찾아와 도와주고 결정적으로 힘이 되어줌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목회자가 일단 결혼을 한 이상 아내의 도움 없이는 결코 혼자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목회자의 아내는 남편 목사의 응원군 즉 '에제르'가

라 영향력이다. 남편을 자기 마음에 맞게 뜯어 고쳐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모가 되어야 한다.

사모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들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내, 어머니, 사모가 되어야 한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겸위와 능력이 풍겨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모가 되자, 사모는 남편 목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모단상

힐러리 클린턴(전 미국대통령부인, 전 미국국무부장관)의 위트

한번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휴가차 한 시골동네를 지나가다가 가솔린을 넣으려고 유류소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스를 넣고 있는 사람이 대학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인 것을 알고 힐러리 여사가 반가워서 차에서 내려 그와 즐겁게 대화를 나눈 후 차안에 들어왔다. 그러자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는 것이다.

사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기능이나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보고 과연 나의 머리로서 자격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기능면이나 결과를 떠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순간 남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며 가정의 질서 이므로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아내는 그 남편이 또한 아내에게도 복종하게 되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항상 남편에게 "You are th Boss, honey!" 하며 남편에게 모든 최종 결정권을 준다.

heesook1939@gmail.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a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삼상29:6-11)

다윗이 처음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 동족을 죽이려 전쟁에 참여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피해 세상으로 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진정 주님 안에서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다섯 연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야기스를 뺀 네 연방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장군들이 싫어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치러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삼상30:1-6)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려하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투해서 성을 불사르고 부녀자와 자녀들은 다 붙잡아갔습니다. 수비군이러도 좀 남겨두었으면 긴급 대책을 세웠을 텐데 6백명을 모두 이 끌고 동족과 싸우려고 나갔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당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다시 일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반

란이 일어나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단합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절대 위기의 절망의 시간에서 다윗은 놀랍게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틀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30:6)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정말 완전히 실패한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잠24:16).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적군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료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목 다윗이 여호와께 물자와 가로되(삼상30:7-8)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쭙어봄으로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잃고 동료의 신임을 잃었지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예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실 뿐

만 아니라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가족들을 한사람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합심해 기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금 다윗은 사백 인을 거느리고(삼상30:9-15)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늘 주변에 생가지 못했던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울며 다윗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함께 동거 동락했던 동역자들이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또 다시 아말렉을 치는 일에 협력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아말렉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 모든 것을 도로 찾고(삼상30:16-20)

사를 밤낮으로 먹지도 못한 애굽 사람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후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 급습해서 깨끗하게 승리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성

도는 항상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 것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항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주목할 것은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orea, USA, and Canada.

진보주의자는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봐야 한다!

NYT, 진보의 편협함과 사각지대 고집는 N. 크리스토프의 자기반성 보도

“팍스뉴스(Fox News)는 보수주의 진영의 대변인으로, 진보주의 비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진보주의 성향으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선대에 리뷰 '스토리 펀딩'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의 칼럼을 실어, 독자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는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원래 생각이 틀려먹어서 그런 것'이라는 식의 반대가 대부분이었는데, 크리스토프는 이에 두 번의 칼럼들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자신의 오만함과 편협함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기 때문이다.

몇 주 전 쓴 칼럼에서 나는 “진보의 편협함을 자백했다(A Confession of Liberal Intolerance). 대학이란 곳은 모든 종류의 의견,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념적인 문제에서만은 보수주의 가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나의 동료 진보주의자들을 비판했다. 나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진보적인 의견만 메아리치는 닫힌 공간이자 보수주의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도에게 적대적인 닫힌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도 가까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단,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와 같다는 전제 아래서만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칼럼에 대한 반응이 한결같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칼럼에 대한 대부분 진보주의자의 반응은 거의 일치했다. 내가 완전히 헛 다리를 짚었다는 것이었다.

“다양성이 좋다고 명칭한 사람들의 견까지 받아들일 건 없잖아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독자의 추천을 받은 댓글이다. 또 다른 인기 댓글을 보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늘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 건 (오허) 보수주의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보수주의자들이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증오와 편견을 설교하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진보주의자들이 각 학문 분야를 장악해 이념적으로 균일한 학문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보수주의적 도그마에 빠진 명칭이 어디든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자유주의, 진보적 가치를 맹신해서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딱딱한 사람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 정치적인 혹은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런 독단적인 명칭이들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자, 그럼 대학의 진보주의를 이끄는 진보주의자들을 살펴보자. 졸업식 등 대학교 행사에 초청할 연사를 고를 때마다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인사가 선정되면 즉각 반대 시위가 열리곤 한다. 이제는 반대하는 범위가 점점 확장돼,

크리스토프는 2001년부터 뉴욕타임스에서 글을 써왔고, 지금까지 2번이나 언론인에게 최고의 영예인 풀리처상을 받았다. 따라서 경쟁 신문사인 워싱턴포스트에서 인권 남용이나 사회적 부정의에 관해서는 “정론”을 쓸 수 있는 기자라는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뉴욕타임스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언론인이다. 그래서 그는 진보주의자이기에, 감히 진보주의자들의 편협함과 동시에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미 학계, 정치계 그리고 언론계에 팽배한 진보주의자들의 아킬레스건을 통렬하게 지적한다(The Liberal Blind Spot). 크리스토프의 글을 정리 게재한다.



“보수주의도 끌어안아야 한다” 주장 큰 반향 고정관념과 차별은 잘못...다양성 확보된 조직이 훨씬 유능 균형 잡힌 학문적 통찰력만 국가정책에 반영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국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원 매들린 올브라이트마저 반대 시위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 앞에 놓인 난관은 당연히 수 세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차별에 맞서야 하는 흑인들의 어려움과 절대 같을 수 없다. 나는 종종 무의식중에 내재한 우리의 편견을 지적한 뒤 그것이 편견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백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곤 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스스로 포용과 통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늘 말한다. 그런데 왜 이런 진보적인 가치가 대체를 이루는 대학교와 학계는 진정한 포용의 장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분야의 편견은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리 진보주의자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보수주의자들의 편협함에 대한 경멸조의 지적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한 번 우리 진보주의자들 또한 심각한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굳혔다.

대학이 왜 여성이나 흑인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수주의자들도 끌어안아야 할까?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고정관념과 차별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자들 무슬림이든 보수주의자든 복음주의 기독교도든 그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어떤 차별은 극심한 편견이라 비난받아 마땅하고, 다른 차별은 반대로 진실을 모르

는 이들을 깨우쳐주는 시대적 소명이자 계몽이라고 포장할 수 없는 일이다.

학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떤 구직자가 복음주의 기독교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가능하면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런 태도가말로 극심한 편견 같다.

둘째, 다양성이 가져오는 혜택이 수 없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수 집단 출신의 누군가를 조직을 꾸리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뽑히는 자선 활동이 아니다. 다양성이 확보된 조직이 훨씬 건강하고 유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은 어느덧 지나치게 균일한 집단이 됐다. 네 가지 다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히 인문과 학과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 공화당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나는 무슬림이나 난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다니는 보수주의자들을 여러 차례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도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적대감도 그 논리적 뿌리가 비슷한 것 같다. 무슬림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특히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도를 바라보는 진보주의자들의 시각도 비슷할지 모른다. 주변에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를 두려워하고 무시하게 된 것 아닐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다양성은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의사결정 절차도 개선된다. 이념의 다양성도 인종의 다양성만큼이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이념 성향이 왼쪽 끝자락에 지나치게 편중되면 학자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잘 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사회에는 빈곤과 관련한 공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해야 할 상아탑이 급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결국 학문적인 통찰력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

반대로 경제학자들은 꾸준히 공공 정책이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학계에서 활약하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필요하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준 덕분에 경제학이 미국 사회과학의 주류 학문으로 남을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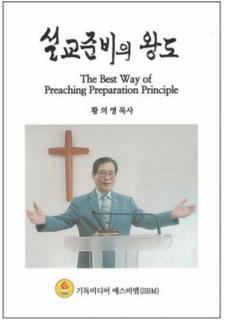


“설교준비의 왕도”

저자 황의영 목사

SBM(“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운동을 펼치며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황의영 목사가 목회자들을 위해 최근 “설교준비의 왕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황의영 목사는 머리말에서 “강단(pulpit)은 영적 생명의 샘이며 목회의 구심점”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권위와 영력과 실력과 박력이 강단과 직결되어 있다. 영감과 활력과 넘치는 예배는 물론 교회 성장의 원동력도 심금을 울리는 수준 높은 설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설교의 질과 강단 수준 높이는 데 도움...

황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 하려면 기본과 원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며 “게시의 본질을 살리는 성경적 설교원리를 깊이 터득하면 반드시 말씀(복음)의 능력이 역사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설교자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순수하게 말씀만 선포하며 또 성경 전부를 가감 없이 체계적으로 선포하면 성경의 뜨거운 감화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강력적으로 역사될 것이라고 황 목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 책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애를 태우는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질과 강단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황의영 목사는 밝혔다.

책은 1. 전체-살아있는 말씀의 능력과 오늘의 설교 현황, 2. 설교의 본질과 핵심 과제를 다시금 생각해보자, 3. 우선적으로 설교자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자, 4. 설교자로서의 영적상태와 그 특징을 점검하자, 5. 설교의 주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6.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과 삶을 파악하자, 7. 설교의 형태와 스타일을 세밀하게 진단해보자, 8. 설교가 미약하다면 그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자, 9. 올바른 설교준비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자, 10. 지금까지의 설교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자, 11. 맺는 말-이제부터 올바른 설교를 정말 잘하자, 등 11개 항목 아래 3주제에서 12주제까지 각각 총 77개의 주제를 다뤘다.

또 마지막에는 ‘설교진단과 평가문항’과 ‘SBM 생활교백’까지 총 175페이지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기독교미디어 에스비엠(sbm01@hotmail.com) 출간.

책 구입은 각 한국서점에서 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2016

대뉴욕 복음화 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우리를 회복케 하옵소서!

주제: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강사: 원팔연 목사 (예수교회 담임목사)

일시: 2016년 7월 15일(금) 7:30PM
7월 16일(토) 7:30PM
7월 17일(주일) 5:00PM

장소: 프라미스교회 (전담주목자교회)
Promise Church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718) 321-7800

명예대회장	장명춘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김남수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장석진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대회장	이종명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부대회장	김홍석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이상호 안수집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연락처	박진하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한준희 목사 (대뉴욕구한민교회의회장)

목회자 세미나

- 일시: 7월 18일(월) 오전 10시
- 장소: 금강신교회
- 강사: 원팔연 목사

어린이복음화대회

- 일시: 7월 15일(금) - 17일(주일)
- 장소: 프라미스교회
- 강사: Pastor Alan Wu

청소년복음화대회

- 일시: 8월 8일(금) - 10일(토)
- 장소: 펜즈한교회

차량운행안내

7월 15일(금), 16일(토): 9:00 ~ 10:00 AM (7월 15일) / 9:00 ~ 10:00 AM (7월 16일)

7월 17일(주일): 9:00 ~ 10:00 AM (7월 17일)

출발시간: 7월 15일(금) 7:00 AM / 7월 16일(토) 7:00 AM / 7월 17일(주일) 5:00 AM

출발장소: 1. 콜리시 공동주목자 신수감신 앞 / 2. 74가 택스하위(구)종학식 앞

대뉴욕구한민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87 61 Ave., Little Neck, NY 11352 • Tel: 718-279-1414 / Fax: 718-279-5838
www.nyckcg.org • E-mail: nyckcg@gmail.com